

화보출연료 전액 기부
모델 삼 남매







더불어 사는 법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 연민과 공감을 배우게 됩니다.

“저 아이는 왜 울어요?”라며 의아해하던 아이도

자신이 넘어져 무릎을 다친 후에는

다른 아이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죠.

사랑의열매는 아동·청소년들에게 타인의 어려움과 외로움에

관심을 갖게 하는 나눔교육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친구에게 다가가 우정과 격려를 전하는 아이는

약자에게 관용을 베풀며 사회공동체를 만드는

선량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열매가 키워가고 있는 나눔교육 프로그램,

귀하의 자녀들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목차



08



First Person

화보촬영비 전액 기부하는 삼 남매

12



스페셜

찾아가는 나눔교육

18



얼굴

김연순 공동모금회 신임 사무총장

20



화제

추자현·우효광 부부 '착한권리' 1호 회원 가입

22



포토뉴스

사랑의온도 100.2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3



나의 나눔 이야기

부부의 정을 듬뿍 담은 짜장면 봉사

24



착한기업

한화그룹

30



착한일터

단에이앤씨종합건축사사무소

32



착한가게가 있는 풍경

충남 천안



Cover



지난 1년 동안 모델로 활동하며 받은 600여만 원의 수익을 성금으로 내놓은 애나, 레아, 라이언 삼 남매(우측부터). 어려운 여건의 친구들을 도울 수 있다는 보람에 장시간 촬영을 해도 카메라 앞에서 밝게 웃었다.





36

희망스토리

평창·강릉에서 외쳐보는 "대~한민국"

38

The Page

나눔을 확산하고 소의를 극복해 줄 두 권의 책

40

Alive Chest

대구 공동모금회

44

나눔 리포트

사랑의열매 개인기부 비율을 더 높여라

46

현장

설 맞아 25만 명에 117억여 원 지원

47

모금회 뉴스

중앙회·전국 17개 지역별 소식

57

이달의 아너 소사이어티

세상을 바꾸는 당신의 결심, 고맙습니다!

58

독자 페이지



사랑의열매 vol. 131 2018 / 3

발행인 허동수
발행일 2018년 3월 / 통권 131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1길 39 사랑의열매 회관 5층
만든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외홍보본부
구독안내 tel 02-6262-3000 fax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편집디자인 조선뉴스프레스 tel 02-724-6783
인쇄 (주)타라TPS tel 031-939-2049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하며,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열매가 희망을 밝힙니다

사랑의열매는 개인기부 33만 명, 착한가게 20,000곳,
아너 소사이어티 1,600회원과 기업 25,684개의 참여로
매년 더욱 풍성하게 열립니다.

질병지원
797억



보건·의료
622억



심리·정서
175억

빈곤지원 3,749억



기초생계
2,580억



교육·자립
846억



주거·환경
323억

소외지원
907억



사회적돌봄
388억



소통·참여
328억



문화격차해소
191억

2016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한 **5,453억 원**(86만 건)은 국내 10대 자선단체와
모금기관의 **국내 공익사업비** 지출 1조 600억 원의 절반이 넘습니다 <출처_한국가이드스타>



1억원 이상 개인기부 아너 소사이어티



수익금 일정액 정기기부 착한가게



급여일부 정기기부 착한일터



매월 가족이름으로 정기기부 착한가정

기부상담 080-890-1212

ARS기부 060-700-1212

-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1997년 제정)에 의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법정 모금 전문 기관입니다.
-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가장 투명한 기부금 관리, 공정한 지원절차로 대한민국의 민간 복지를 이끌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는 기부

지금, 돌아보주세요

생각보다 가까이, 돌아보면 더 많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나눔으로 따뜻한 세상,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임윤아 아너 소사이어티 713호 회원

기부상담 080-890-1212 | ARS 기부 060-700-1212

First Person

글 김가린 사진 이광재



쌍둥이 누나 레아



쌍둥이 동생 라이언

친구 돕는다니

모델 활동을 하며 화보촬영비 전액을 기부하고 있는 애나네 삼 남매

기쁘게 ‘찰칵’

아홉 살이 된 애나는 동생 레아, 라이언과 함께 카메라 앞에 설 때 가장 행복하다. 예쁜 옷도 입을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칭찬해 주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환경의 친구들을 위해 선물을 사줄 수 있어서 기쁘다.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할 줄 아는 아이들로 성장하길 바라며 세 아이의 엄마 전희숙씨는 모델 활동비 전액을 기부하고 있다.



첫째 애나

모델 활동이 제일 즐거운 삼 남매, 1년여 동안 600여만 원 전달하며 기부 약속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삼 남매 애나, 레아, 라이언은 경력 2년 차 키즈 모델이다. 길고 늘씬한 팔다리를 가진 첫째 애나는 차분하면서도 묘한 매력의 표정과 눈빛이 특징이다. 일곱 살 쌍둥이 레아와 라이언은 오목조목 귀여운 이목구비에 환하게 웃는 미소가 보는 이들에게 기분 좋은 에너지를 전한다. 2016년 9월 처음 데뷔해 세 남매 모두 유명 매거진이나 어린이 용품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활약 중이다. 낯선 스태프도 많아 긴장할 법하지만 셔터 소리가 들리면 이내 밝게 웃는 모습이 프로답다.

요즘 애나에게 사진 촬영이 즐거운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 모델 일을 하며 번 돈으로 어려운 환경의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엄마 전희숙씨는 삼 남매의 모델비를 전액 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하고 있다. 아이들의 마음을 담아 전달한 금액이 지금까지 총 600여만 원가량이다. 뿐만 아니라 매월 20만 원씩 정기 기부도 함께하기로 했다고. 장난감을 사는 대신 기부하기로 했지만 아이들은 서운한 마음보다 친구들을 도울 수 있어 더 뿌듯하다. “처음에는 모델비를 받으면 촬영하느라 애썼으니 간식이나 장난감처럼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을 선물로 사줬어요. 그런데 새것을 사는 일이 너무 당연해선지 아이들이 그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금방 싫증을 내더라고요. 그때부터 모델비를 아이들에게 쓰는 대신 기부하기로 했어요. 아이들에게도 그 돈은 선물 대신 어려운 친구들을 돕는 데 쓰겠다고 설명해 주었죠.”

“일찍이
재능과 기회를 얻은 만큼
기부를 통해
나누는 법을 가르칠 수
있었어요.
욕심 부리지 않고
현재에 만족하며 나아가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할 줄 아는
행복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데
기부만큼 좋은 교육은
없을 거라 믿습니다.”



“엄마 오늘 나 잘했어?... 친구들에게 신발 일만큼 사줄 수 있어?”

어린 아이들이 기부를 이해하기란 어려웠다. 그러던 중 TV 속 후원을 기다리는 아프리카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됐다. 또래의 아이들이 셔츠와 신발도 없이 흙길을 뛰어다니는 모습이 세 아이들에겐 낯설고도 놀라운 광경이었다. 특히 아기를 좋아하는 레아에게 잘 먹지 못해 바짝 마른 채로 울고 있는 아프리카 아기의 모습은 쉽게 잊히지 않을 만큼 강렬한 인상으로 남았다. ‘저 친구는 왜 신발도 없이 맨발로 걷고 있는지, 마른 아이들이 왜 울고 있는지’ 물었고, 먹을 것과 신을 것이 충분치 않은 아이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아이들이 먼저 그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냐고 했다.

아프리카 친구들의 모습을 본 이후부터 아이들은 촬영이 끝날 때마다 엄마에게 와서 이렇게 묻는다. ‘엄마 오늘 나 잘했어? 신발 일만큼 사줄 수 있어?’ 힘든 촬영일정에 평소 같았으면 칭얼거리고 울 아들이 그만하겠냐고 묻자 그래도 해보겠다고 말한다. 맑은 바를 다 해내야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마트에 가면 비싼 장난감을 들고 사달라며 떼를 쓰다가도 ‘다른 친구들은 배가 고파 울고 있을 텐데 꼭 사고 싶으니’라고 물으면 단번에 내려놓는다.

어머니 전희숙씨, 양보하고 나누는 인성교육

세 아이는 아버지를 따라 3년마다 한 번씩 국가와 지역을 바꿔가며 이사를 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서로가 가장 돈독한 친구다. 욕심 부리고 싸울 때면 부모는 나서서 해결해 주기보다 규칙을 세우고 양보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친다. 하나뿐인 장난감은 공평하게 가지고 놀 순서를 정하고, 똑같이 나누는 과자를 더 먹고 싶으면 부탁하고 양보하며 나누도록 한다.

아이들의 모델비 기부 역시 사랑 나눔 실천이 중요하다고 여긴 부모 덕분에 가능했다. 부모 역시 레아와 라이언이 태어나던 2012년부터 해외 아동 후원을 하고 있다. 쌍둥이를 귀하게 얻은 만큼 아이들의 탄생을 기념하고자 나눔을 시작했다. 엄마 전희숙씨의 경우 우연히 소외계층 가정의 이야기를 듣고 나눔을 통해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시작하겠다고 깨달았다.

“시각장애를 가진 엄마와 아들의 이야기였어요. 형편이 넉넉지 않았지만 어린 아들은 친구들을 만나면 엄마를 부끄러워하기보다 당당하게 먼저 소개했대요. 그 가정의 이야기가 알려지고 많은 이의 도움으로 엄마가 개안수술을 하게 됐죠. 눈을 떠 새 삶을 시작하게 된 엄마가 가장 먼저 한 말이 ‘아들아, 우리도 이제 남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자’였대요. 불행은 자신이 가진 상황을 부족하다 여길 때 시작되는 것 같아요. 시각장애인 엄마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이와 받은 도움을 갚으며 살겠다는 엄마의 이야기가 건강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로 키우고 싶은 세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준 것 같아요.”

세 아이는 신비스러운 외모와 특별한 재능으로 많은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얻곤 한다. 그럴 때마다 부모는 세 아이가 자만하거나 타인을 무시하는 어른으로 자라지 않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선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는 법을 일깨우는 것이 먼저였다. 나눔은 그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일찍이 재능과 기회를 얻은 만큼 기부를 통해 나누는 법을 가르칠 수 있었어요. 욕심 부리지 않고 현재에 만족하며 나아가나눌 수 있음에 감사할 줄 아는 행복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데 기부만큼 좋은 교육은 없을 거라 믿습니다.” ❀

스페셜_찾아가는 나눔교육

글 이일섭, 박미진 사진 이광재, 양수열

세 살 나눔 여든까지 가게 '새싹 교육'

우리 아이가 기특해졌어요

미술 영역



전문가들은 나눔의 출발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내 것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나눔이라 여기지만 다른 사람에 앞서 자신에게 나눌 줄 아는 자만이 받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며 올바른 나눔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나눔이라는 이 단순한 표현에는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의미와 행동 방식이 담겨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찾아가는 나눔교육’은 유치원과 초등학교로 나눔교육 전문강사를 파견해 자존감과 이타심을 심어주는 인문 나눔수업이다. ‘찾아가는 나눔교육’, 아이들에게 나눔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왜 자꾸 나누라고 하죠?”에서 “니누니 행복해요”까지

“왜 자꾸 나누라고 하세요? 저는 나누기 싫어요. 제가 가진 것은 오직 저한테만 쓸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아이에게는 나눔을 왜 해야 하는지 딱히 해줄 말이 없다. 그저 나누면 모두가 행복해진다는 말밖에는 말이다.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를 위해 쓰고 싶다는 이 기본적인 욕구를 주장하는 아이를 이기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찾아가는 나눔교육’은 아이들의 이 마음을 다듬는 데서 출발한다.

‘찾아가는 나눔교육’은 유아는 3차례, 초등생은 8차례의 수업을 통해 나눔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경험을 하게 된다. 아동들은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자존감과 소통 능력을 배양하며 더불어 사는 기쁨을 배우게 된다.

모금회, 유치원·초등학교에 전문가 보내 눈높이 교육

만 7세 이하 유아와 초등학교 2학년·5학년을 주요 대상으로 실시하는 ‘찾아가는 나눔교육’의 내용은 새로운 발상과 효과로 아이와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5년 차를 맞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공동모금회가 유치원, 초등학교에 전문강사를 파견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나눔교육을 전개하며 인성교육의 좋은 예가 되고 있다. 더욱이 조기 나눔교육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며 아이들의 정서순화와 공감·소통 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찾아가는 나눔교육’은 스스로에게 하는 나눔을 통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이를 통해 아이들은 자존감을 갖게 된다. 그렇다면 자신 스스로에게 하는 나눔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자신 스스로를 위하고 격려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고맙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쑥스러운 일이지만 학교 공부가 어려워 힘이 들거나 새로운 친구에게 다가가며 느끼는 망설임을 떨칠 수 있는 큰 용기가 되곤 한다.

‘찾아가는 나눔교육’은 자신을 위한 방법을 아는 어린이가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며 나눔에 동참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전문가들은 아이들에게 자신과 타인을 위하고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며 아이들의 생활 속에 나눔의식이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고 있다.

나눔 개념 이해에 이어 나눔을 행동으로 옮기게 유도

총 3차시로 운영되는 유아 대상 프로그램은 구연동화와 스토리텔링 방식을 활용해 교실을 소극장으로 탈바꿈시키곤 한다. 전문가들의 재능이 돋보이는 인형극 수업을 통해 유아들은 나눔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며 친절하기, 돕기, 공감하기, 협력하기 등 나눔활동을 통한 관계 맺기를 경험하게 된다.

총 8차시로 규모가 커지는 초등생 대상 프로그램은 한층 다양하고 깊이 있는 수업이 진행된다. ‘내가 생각하는 나눔은 무엇인가’를 통해 나눔의 개념에 대해 접근하며 ‘자아 존중감 강화’와 ‘타인의 감정 이해’ 등 자신과 타인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친구 칭찬하기’와 역할극을 통해 서로를 배려하는 법을 배우게 되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나눔장터(바자회) 개최, 자원봉사 참여 등 나눔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보는 계기를 마련한다.



제주 리라어린이집

“나눔교육 받고선 싸우지도 않고 서로 양보”

제주시 리라어린이집 유아들이 모은 장터 수익금 21만 270원이 제주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능력은 아직 없지만 ‘찾아가는 나눔교육’ 중에 들은 외로운 이웃을 도와줘야 한다는 얘기에 힘입어 엄마와 선생님을 도와가며 아나바다 장터 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지난 1월 장터 수익금을 기탁한 강경숙 원장은 그 소감을 이렇게 전한다.

“‘찾아가는 나눔교육’ 덕분에요, 뭐! 올해가 7년 차 장터인데 그전엔 아이들이 물건을 집어 던지고 한쪽에선 서로 갖겠다고 싸우고 난장판이 따로 없었죠. 하지만 나눔수업 이후로 그런 일이 신기하게도 모두 사라졌어요. 울거나 방해만 하지 않아도 고마운 일인데 이번엔 작은 손으로 물건을 정리하는 등 아이들이 참 착해졌어요. 평소에도 차례를 지킨다거나 양보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아직 어리지만 남을 기쁘게 하는 일이 좋은 일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찾아가는 나눔교육 실시현황(2017) : 총 1만 2,324회 실시 / 총 27만 3,004명 참석

지역	수도권 (대전·인천)		영남권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호남권 (광주·전북·전남·제주)		계	
	유아	초등	유아	초등	유아	초등	유아	초등
횟수 (회)	412	2,005	3,171	1,062	2,679	2,995	6,262	6,062
인원 (명)	8,911	48,525	63,349	25,260	50,412	76,547	122,672	150,332



광주 새별초 2학년생들 각자의 보물과 애장품 들고나와 모금액 마련

지난해 10월 광주 새별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나눔장터를 통해 얻은 수익금 42만 9,390원을 나눔교육센터에 기탁하며 '찾아가는 나눔교육'의 결실을 제대로 보여주었다. 학생들은 9월 중 8차례에 걸쳐 진행된 나눔교육을 통해 스스로 행하는 나눔 프로젝트를 추진해 학교장터를 열게 됐다. 각자의 보물과 애장품을 들고나와 모금액을 마련하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2학년 이도연 군은 '찾아가는 나눔교육'이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계기가 됐다고 얘기한다. "행동하기 전에 물어보는 습관을 갖게 됐어요. 전에는 제 마음이 내키는 대로 친구 가방을 들어주거나 떡볶이 값을 냈지만 그게 정답이 아니란 걸 알았어요. 친구는 가방의 헤진 부분을 보이는 게 부끄러울 수도 있고 왜 내게 이걸 사주지? 하며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우정이 더 쌓이면 그런 불편함 또한 없어지겠죠. 그래서 친하다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교육 마친 아이들 "나눔은 사는 데 필요한 산소 같은 것"

'찾아가는 나눔교육' 8차시 수업을 마친 아동에게 나눔이 무엇이라고 물었더니 '산소' '코딱지'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며 "과면 팔수록 더 커지는 코딱지처럼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게 나눔"이기 때문이란 답이다. 아이들의 상상력을 지켜보고 있으면 우리 미래가 결코 어둡지 않다는 안도감이 든다. 나눔교육을 활성화한다면 학교는 아이들의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곳으로 진일보하게 된다. 교실에서 아이들의 자존감이 살아나면 서로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서로의 생각과 행동이 존중되는 교실에서는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공동모금회가 추진하는 '찾아가는 나눔교육'은 자아존중에서 타인존중으로 확대되는 과정에 역점을 두며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다. 나눔이 생활 속의 자연스런 행동임을 인식시키면서 말이다. 🌸

'찾아가는 나눔교육' 이용 절차



*시행 지역 : 서울·대전·인천·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광주·전북·전남·제주

*차시당 40분 소요

*교육신청 : www.nanumsam.or.kr

인천 지역 담당 김미정 강사의 생활 속 나눔교육

“자녀들에 칭찬·격려·신뢰 아끼지 마세요”

김미정씨는 올해로 3년차 경력을 갖고 있는 나눔교육 강사로 지역 내 14명의 강사를 리드하는 총무 직함을 맡고 있다. ‘찾아가는 나눔교육’의 현장 경험은 민성(중2), 하원(초등6) 두 아들의 인성교육에 탁월한 혜안이 되곤 한다. 수업 중 아이들과 공감했던 에피소드와 나눔의 의미를 두 아이에게 전하며 선량하고 지혜로운 엄마 역할을 충중하게 해내고 있다.





두 아들은 엄마 가르침 따르다 보니 각종 선행상 받아

“나눔교육을 나가보면 나눔을 참 막연하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돈이나 음식 같은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것’처럼 협소한 범위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이 나눔인 만큼 반갑게 인사한다거나, 아랫집이 시끄럽지 않게 뛰지 않는 것처럼 일상 속의 다양한 나눔을 알려줘요. ‘너희도 이미 나눔을 많이 하는 나눔왕이야’라고 말해주면 놀라워하죠. 우리 아이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인천 지역에서 나눔교육 강사 총무로 활동하는 김미정씨. 유치원과 학교에서는 많은 아이에게, 집에서는 중학교 2학년 민성(만 14세)이와 초등학교 6학년 하원(만 12세) 두 아이에게 나눔문화를 전파하는 나눔 전도사다.

나눔은 아이들의 삶 속에 있는 만큼 수업 내용 역시 아이들의 일상이 중심이 된다. 특히 자신의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겪은 일들이 예로 자주 등장한다. 아이 또래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생생한 사례들의 학습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수업에서 아이들의 반응을 보며 당시에는 놓치고 지나갔던 자녀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일도 있다고. 자신의 아이를 더 잘 이해하고,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시작하게 된 나눔교육이 그녀에게 주는 선물인 셈이다.

“자신에 대한 애착이 생기면 주변 둘러보게 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아이가 되기 위해서 김미정씨는 딱 세 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한다.

“바로 칭찬, 격려, 신뢰만 있으면 돼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부모가 끊임 없이 해주어야 할 일이죠. 이렇게 마음 바탕이 튼튼하면 아이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자신에 대한 애착이 생기면서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돼요.”

어찌 보면 쉬운 답인 것 같지만 현실은 다르다. 수업 중 친구를 칭찬하는 시간을 살펴보면 어색해하는 아이들이 많다. 평소 부모가 아이 칭찬에 인색한 결과다.

그녀 역시 한때는 엄마의 욕심이 앞서 칭찬에 인색했던 엄마였다. ‘멋진 노민성 너 진짜 최고야~’ ‘잘생긴 노하원 진짜 멋진데~’라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무한 칭찬과 신뢰를 보여주었던 남편과는 참 다른 모습이었다. “열심히 공부한 아이를 다그치고, 울리는 일이 많았어요. 하지만 ‘100%

실력을 발휘한 것이라면 박수를 쳐줘야 할까, 아단을 쳐야 할까?’라는 남편의 물음에 아이와 처지를 바꿔놓고 생각하게 됐고, 아이 삶에서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시각을 바꿀 수 있었죠.”

아이들에게 다양한 나눔교육을 하는 김미정 강사 가족은 재작년부터 요양원으로 봉사활동도 나가고 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빠까지 합세했지만, 아이들이 처음부터 협조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큰아들 민성은 웃으면서 “처음에는 엄마한테 끌려갔어요”라고 말할 정도다.

“요양원에서 몸이 불편해서 누워계신 할머니들 모습을 직접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나중에 우리 엄마일 수 있고, 또 제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할머니들이 불편하시지 않게 심부름해 드리거나, 발 마사지를 해드려요. 제 작은 노력에 할머니들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더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온 가족이 요양원 봉사활동… 두 아이들이 더 적극적

둘째 하원은 그동안 참여했던 봉사활동 중 놀이터에서 놀던 친구들도 함께 요양원에 갔던 일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형이 하는 일들을 저도 같이 도왔어요. 끝나고 나니 저 스스로가 기특하고 뿌듯했어요. 처음에는 밖에서 신나게 놀고 싶었던 친구들도 ‘놀이터에서 노는 것보다 더 재밌었다’고 해서 더 기분이 좋았죠.”

엄마인 김미정 강사도 뿌듯하기는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요양원에 가셔도 쭈뼛쭈뼛거렸던 아이들, 한 할 줄 알았던 계산 청소도 씩씩하게 하고, 어르신들의 마음을 살피고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참 고맙다.

“마음 깊숙이 느껴지는 바가 다르다 보니 자연스레 행동으로 우려러 나 오더라고요. 요즘은 요양원에 가지는 말에 즐겁게 따라 나설 정도로 많이 변했죠.”

주변 이웃을 위한 마음 나눔으로 하루하루 마음이 더 커가는 아이들을 보며 ‘아이들이 잘 크고 있구나’ 하는 행복감도 커진다. 김미정 강사. 나눔교육을 시작하고 싶은 엄마들에게 작은 바람을 전한다.

“내 아이가 더 빨리, 더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엄마들이 많죠. 하지만 아이에게 있어 더 중요한 건 얼마나 더 빨리 가느냐보다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게 아닐까요. 엄마의 욕심을 조금 내려두고 나눔교육으로 주변을 돌아보고 챙길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아이가 되도록 도와주면 어떨까요?”

김연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임 사무총장 “다양한 네트워크 활용해 사회복지 영역 넓히고 싶다”

지난 2월 5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새롭게 이끌 김연순 사무총장이 취임했다. 서울동부여성민우회 대표,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 (협)행복중심협동조합지원센터 이사장 등 28년간 비영리단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온 김 사무총장은 공동모금회의 영역 확장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생계비나 병원비 지원 등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긴급 복지도 중요하지만 지원대상자들을 지속가능한 삶으로 이끄는 복지도 놓쳐서는 안 된다. 아울러 그동안 잘 해오던 사회복지 분야에 환경, 인권, 성평등 분야를 더해 모금회의 활동 영역을 더욱 넓히는 데 힘 쏟고 싶다.”

김 총장은 밖에서 볼 때 공동모금회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많은데, 전통적인 사회복지 영역에 너무 국한돼 있는 듯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또한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 성평등, 도시재생, 주민자치 등 그동안 자신이 활동해 왔던 다양한 영역의 의제들과 공동모금회가 만나 더 큰 효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드러냈다.

28년간 여성·협동조합 등 비영리 단체서 활동

김 사무총장은 중학교 때 봉사활동을 통해 악취가 심한 병실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돼 있는 사람들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고, 돌아오는 길 재래시장에서 아무도 사지 않을 듯한 야채를 파는 할머니 또 그 야채를 100원, 200원 주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강렬했다고 한다.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돌이켜보니 그 순간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된 것 같다.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나 혼자 잘살기보다 내가 사는 세상에 그런 어려운 이웃들이 없도록 힘을 보태면서 살겠다고 결심하게 됐다.”

지역여성운동을 시작으로 생활협동조합에서 활동,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통해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매달렸다. 한 단체에 국한되지 않고, 마을공동체·지속 가능한 발전·주민자치 등 의제와 연계된 역할을 해왔기에 전국 의 많은 활동가와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다고 김 총장은 밝혔다. 따라서 자신의 그 다양한 영역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동모금회가 더 넓은 영역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취임 첫날부터 의전 문화 개선·여직원 휴게실 활용 등 변화

김 사무총장은 공동모금회의 주요 현안으로 지정기탁과 현물기부의 개선, 개인모금 확대 등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구성원들과 충분히 논의해 공통된 인식이 도출되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목표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의 하나가 민주적인 의사소통이다. 독단이 아니라 합의로 개선을 이뤄나가겠다.” 내부의 합의 도출 과정 없이 개선을 서두르다 일을 그르치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반면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빠르게 집행하겠다고 했다. 예를 들어 지나친 의전 문화 근절, 일회용품 사용 자제, 여직원 휴게실을 휴게실답게 만드는 일과 성평등 교육 강화 등은 취임 첫날부터 추진한 변화다. 이러한 변화는 김 사무총장이 성평등, 지속 가능하고 생태적 삶,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런 가치가 발현되는 조직 문화가 만들어져야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임기 동안 공동모금회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효율적으로 바꾸고 싶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국민 모두에게 사랑 받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만들고 싶다.”



profile

김연순 신임 사무총장은 경기도 의정부 출생으로, 상명여대 사회과를 졸업하고 경희대 NGO대학원 시민사회학 석사(2007), 서울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2010)에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했다. 서울동북여성민우회 대표(1999~2002), 한국여성민우회생협 이사장(2007~2010),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2011~2012), (협)행복중심협동조합지원센터 이사장(2015~2018)을 역임했다.

화제

글 김효정 사진 임영근

추자현·우효광 부부, '착한권리' 1호 회원 가입 신개념 모금 캠페인 스타트

이웃을 배려하고 위하는 마음만 있다면 꼭 현금이나 현물 기부가 아니더라도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은 있다.
공동모금회가 새롭게 선보인 모금 캠페인 '착한권리'도 여기에 속한다.



‘착한권리’는 공동모금회의 ‘착한가게’ ‘착한일터’ ‘착한가정’ 등의 모금 캠페인과 마찬가지로 기부자가 나눔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게 하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명칭 그대로 기부자는 문화·음악·미술 작품 등의 저작권, 특허·상표·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을 비롯한 다양한 지식재산 및 무형자산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 또는 권리를 기부할 수 있다. 특별한 가치가 있는 재산을 나눔으로써 빈곤과 질병 등으로 고통받는 이웃과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의미가 크다.

기부기간 1년부터... 기부금 1억 넘으면 아너 인증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지식재산 및 무형자산을 어떻게 기부할 수 있을까. 방식은 간단하다.

첫째, 해당 권리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한 정기기부를 약정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엔 기부 금액을 미리 설정할 수 있고, 50%나 30%와 같이 일정 비율을 미리 정해두고 그만큼 기부할 수도 있다. 물론 수익금 전액을 기부할 수도 있다. 기부기간은 최소 1년부터 저작권 만료일까지 조율 가능하다.

둘째, 해당 권리의 소유권을 공동모금회에 양도하는 방식이다. 말 그대로 권리 자체를 기부하는 것으로, 이 경우엔 권리 감정가액으로 기부 금액을 결정한다.

이렇게 기부한 금액이 1억 원이 넘으면 공동모금회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인증한다.

이문세씨 등 연예인 저작권 기부 사례 많아

‘착한권리’가 생기기 전에도, 공동모금회를 통해 자신이 가진 지적재산 및 무형자산으로 나눔을 실천한 사례는 적지 않다. 지난 2009년 가수 이문세씨가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청취자들과 함께 완성한 노래 ‘이 겨울이 날 지나간다’의 저작권을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여러 예술가와 연예인 등이 작품의 저작권 및 수익금 기부에 동참하고 있다.

공동모금회 관계자는 “착한권리’ 모금 캠페인을 통해 지적재산 및 무형자산 기부 사례를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형의 콘텐츠가 소비재로서 인기를 얻고,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점차 명확해지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공동모금회를 통한 ‘착한권리’ 기부 사례는 더 늘 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추자현·우효광 부부

듀엣곡 ‘그대잖아요’ 음원수익 전액 기부

‘착한권리’의 1호 회원이 지난 2월 13일 탄생했다. 주인공은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 추자현·우효광 부부다.

추자현·우효광 부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을 방문해, 자신들의 듀엣곡 ‘그대잖아요’ 음원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 전액을 기부한다는 내용의 가입서에 서명하고 ‘착한권리’ 1호 회원이 됐다. 성금은 부부의 뜻에 따라 국내 빈곤·질병·소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된다.

추자현·우효광 부부는 공동모금회 임직원과 함께한 가입식 현장에서 시종일관 밝은 미소를 지으며 “그동안 여러분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늘 그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고 싶다고 생각했다”며 “우리 부부가 함께 부른 음원의 수익금이 많은 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발매된 부부의 듀엣곡 ‘그대잖아요’는 가수 신승훈씨가 작곡해 부부에게 선물한 곡으로, SBS 예능프로그램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서 녹음과정 공개되며 발매 전부터 많은 화제가 됐다.

포토뉴스

사진 이신영



사랑의온도 100.2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2월 1일 서울 광화문광장 사랑의온도탑 앞에서 희망2018나눔캠페인 폐막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허동수 공동모금회장, 박찬봉 공동모금회 사무총장, 윤영석 서울 공동모금회장을 비롯해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가수 박상민씨와 기부자 대표로 충북 제천 동명초 강나연 양이 참석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목표액인 3,994억 원보다 9억 원이 많은 4,003억 원(잠정집계)을 모금하며 사랑의온도탑 수은주는 최종적으로 100.2도를 기록했다. 폐막식은 사랑의열매 홍보대사인 방승인 방송인 전제향씨와 나경철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됐다. 캠페인 경과 보고와 함께 참석자들과 임직원들은 '나눔으로 행복한 나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원형 별문을 통해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광화문 주변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감사 물품을 전달하며 100도 달성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허동수 회장은 "일부 사람들의 잘못된 모금과 유용으로 싸늘해진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많은 분이 보내주시는 기부 독려와 응원이 큰 힘이 되었다. 소중한 성금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도움이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하겠다"고 말했다.

부부의 정을 듬뿍 담은 짜장면 봉사

전북 정읍에서 중국집을 하는 부부입니다. 크게 내세울 것도 없는데 글을 쓰라고 하니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짜장면 나눔은 제 아내의 아이디어였어요. 짜장면을 20세 사회 초년생 때 처음 먹었다데요. 지독하게 가난해서 짜장면 사달라는 말을 감히 꺼낼 수도 없었던 거죠. 8남매의 장녀이니 철도 일찍 들었을 겁니다. 동생들 공부시키느라 대학도 못 갔는데 짜장면은 언감생심이었겠죠. 국민학교 졸업식 때 친구들이 먹던 짜장면이 그렇게 맛있어 보였대요. '내가 커서 어른이 되면 짜장면 실컷 사먹을 거야' 다짐을 했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친구 결혼식장에서 아내를 보고 첫눈에 반해 결혼을 했는데요. 본의 아니게 제가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게 됐어요. 제 직업이 요리사였거든요. 짜장면은 실컷 먹게 해준 거죠. (하하)

1999년 작은 중국집을 오픈하고 나서 어느 날 아내가 저를 조용히 부르더군요. '짜장면 무료 봉사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묻더군요. 자기 어려울 때 생각이 많이 난다는 겁니다. 짜장면 먹고 싶어도 돈 없어 못 먹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프다며 눈물짓는데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2000년부터 시작한 짜장면 무료 제공 봉사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장애인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찾아가 짜장면을 만들어 드렸어요. 가게가 작아서 초대를 할 수 없었죠. 그러다 지금의 자리로 가게를 옮기면서 더 많은 분이 드실 수 있도록 초대를 했습니다. 지금은 매월 하루 날을 잡아 나눔빌, 화평의집, 희망지역아동센터 등 지역에 있는 장애인시설 3곳의 장애우들을 초대해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동네 노인정에 연락을 드려 어르신들에게도 무료로 대접하고 있어요. 이제는 소문이 나서 짜장면 드리는 날에는 300~400명 오십니다. 아내는 아이들이 오면 '우리 식구 왔네' 하면서 그렇게 좋아해요. 그리고 자랑은 아니지만 아내가 졸업한 내장초등학교 동문들이 주축이 된 내장청년회의 의료봉사활동에 14년째 짜장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사랑의열매 착한가게에도 매달 동참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힘든 줄도 몰라요.

2010년 아내가 갑상선암 수술을 했을 땐 '이제 그만하려나?' 했어요. 그런데 약속은 지켜야 한다며 계속하더라고요. 얼마나 대견하던지요. 아내가 저에게 그래요. 행복하다고요. 삶의 원동력이라는데 어떻게 그만둘 수가 있겠어요. 이젠 저도 아내의 나눔 행복이 전염됐는지 봉사활동을 하고 나면 그렇게 좋을 수 없습니다. 봉사 끝나면 서로 어깨 토닥이며 '수고했다' 한마디 건네는 것으로 대신하지만 무엇보다 값진 선물을 서로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젠 나눔의 맛에 중독이 돼 멈출 수가 없어요. 이 좋은 걸 어떻게 안 할 수 있어요. 우리 부부가 힘이 있고 움직일 수 있는 날까지 짜장면 봉사는 계속할 겁니다. 여러분도 나누면 행복해집니다. 진짜예요. 숨쉴 틈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혼자 빨리’보다 ‘함께 멀리’를 위한 차별화된 상생 프로그램

아무리 큰 나무라 할지라도 홀로 숲을 만들 순 없다. 사업 보국을 창업이념으로 삼고 있는 한화그룹의 사회공헌활동은 큰 숲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닮아 있다. 체계적이면서도 규모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다양한 분야에서 실천하며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꿈꾸고 있다.



그룹 차원 봉사단 운영... 80여 사업장마다 사회공헌 담당자 있어

지난 2002년 창립 50주년을 맞은 한화그룹엔 사회공헌 전담조직이 생겨났다. 그리고 보다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2007년 10월엔 한화사회봉사단을 창단했다. 한화그룹 사회공헌활동의 주체는 임직원들이다.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모으면 회사는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더해 매칭그랜트 기부금을 완성시킨다. 직원들이 언제라도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유급자원봉사 제도를 만들고, 2003년부터는 ‘그룹 공동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전 사업장이 함께 뭉치기도 한다. 전국 80여 개 사업장에 사회공헌 담당자가 있는데, 이들은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공헌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활동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후원 역시 눈에 띈다. '한화와 함께하는 교향악축제' '한화 팝&클래식 여행' '한화 청소년 오케스트라' 등을 통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다. 매년 가을 한강에서 펼쳐지는 '한화와 함께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나 지친 현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꽃로드 캠페인' 등으로 오늘을 위로하고 내일을 살아가는 힘을 충전하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다.

사업과 연계한 전략적 사회공헌도 활발

사업과 연계한 전략적 사회공헌활동도 추진 중이다. 국내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원하는 'Happy Sunshine' 캠페인은 전기요금을 절감할 뿐 아니라 절약된 관리 운영비를 다른 복지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어 나눔의 선순환 구조를 완성했다. 공교육 활성화와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기부에도 앞장서고 있는 한화그룹은 2016년부터 '한화-카이스트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 영재 발굴과 우수 이공계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국경을 초월한 나눔 역시 활발하다. 중국의 사막화 현상이나 일본 지진에 대해서도 글로벌 시민으로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지원을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태양광 설비 지원 'Happy Sunshine' 캠페인

비영리 기관 및 저소득가정의 삶의 질 개선
전기요금 줄이고 환경 살리는 나눔의 선순환

한화그룹은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원하는 'Happy Sunshine'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국의 종합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 등 비영리기관 및 저소득가정을 대상으로 규모와 위치, 전기 사용량을 고려해 태양광 발전 설비의 필요성이 절실한 곳을 우선 선정한다. 그리고 무상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 지원하는데 유지 보수와 발전량 모니터링 등까지 철저한 사후 관리도 진행되니 걱정 없다.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은 많지만 도배나 장판 제공, 집짓기 등의 활동만으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 집이 있지만 단열재가 부족해 겨울에도 여전히 연탄을 사용하는 불편을 겪거나 난방비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다. 어려운 환경의 기관이나 주민들은 매년 반복되는 어려움에 실질적인 해결을 호소하지만 대안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때문에 한화의 'Happy Sunshine' 캠페인은 그 효과가 뛰어나 원하는 이들이 많다. 태양광을 전기로 변환해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절감, 기관이나 가정의 에너지 비용 지출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주거환경이 개선되니 한층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큰 보탬이 된다.

이 사업은 에너지 비용 절감의 차원뿐 아니라 친환경 복지를 실천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공해를 일으키지 않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기에 친환경 복지 서비스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도 높다.

7년간 217개 복지시설에 태양광 설비 지원

한화는 2011년부터 7년간 총 217개 복지시설에 1,527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지원해 왔다. 2017년부터 1년 동안에만 전국 21개 비영리 기관 및 2곳의 저소득가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다. 이는 881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킨 수준인데, 20년 수명의 소나무 약 30만 그루 이상을 심는 효과와도 맞먹는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신재생 에너지 활용에 대한 중요성도 인식하게 하고 복지시설의 에너지 자립에 도움을 주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본다. 태양광 발전 설비를 지원받은 기관들은 전기요금을 절약한 금액을 다른 복지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으니 나눔이 나눔을 낳는 선순환 구조도 완성할 수 있다.

‘Happy Sunshine’ 캠페인은 중국으로도 뻗어간다. 중국 후베이성의 위양관전 초등학교, 칭하이성의 시에거우 상희망학교 등 해외에서도 지붕형 태양광 발전 설비 무상 설치를 실시했다.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 사막화 방지를 위한 ‘한화 태양의 숲’ 캠페인으로 번져 중국 마오쓰 사막에 5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등 국내의 친환경 가치 창출을 위한 복지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한화 청소년 오케스트라

“첼로 레슨도 받고 연주도 하다니”
음악을 통해 자존감과 협동심 키워

취약계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음악이나 악기를 배우는 것은 사치처럼 느껴진다. 한화 청소년오케스트라의 첼로 단원으로 활약 중인 세라(가명·16)도 그랬다. 크게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세라의 삶에서 첼로가 없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되었다.

‘함께, 멀리’라는 철학을 사회공헌의 원칙으로 삼은 한화는 배려와 소통, 화합을 위해 음악을 선택했다. 사회적·경제적 계층의 구분을 없애고 결과 지향적 구도 안에서 정서적으로 피폐해져 가는 학생들을 위해 오케스트라 교육을 시작한 것이다.

한화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악기 교육을 통한 정서 함양 및 자존감 회복을 목표로 2014년부터 기획되었다. 문화예술에 소외되었던 청소년들에게 일회성이 아닌 수준 높은 음악 교육의 기회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음악을 매개로 공동 예술작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다른 학생들과 하모니를 이뤄가는 과정을 통해 사회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꿈키움 전공레슨’으로 음악대학 입학의 성과 이뤄

충청 지역의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클래식 음악에 관심이나 재능이 있지만 경제적·환경적 제약으로 음악 공부를 이어가지 못한 학생들을 모집했다.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기까지 총 60명의 학생이 모였다. 이들은 35명의 현악 앙상블과 25명의 관악 앙상블로 나뉘어 수업받고 있다. 대부분의 학생은 처음에 ‘악기 하나쯤 배워두자’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시작했다고 한다. 하지만 많은 친구와 어우러지며 소속감과 협동심은 물론 자기가 맡은 파트에 대한 책임감도 생겼다. 악기를 통한 성취감과 음악이 주는 행복이 학생들에겐 새로운 꿈을 키워주기도 한다. 3년 내내 참여한 학생 중에서는 클래식 음악을 전공으로 하고, 음악가를 장래희망으로 꼽는 학생들도 생겼다.

이런 학생들에게는 학원 교습보다는 ‘꿈키움 전공 레슨 프로그램’을 통해 집중 케어했다. 전공 학과로의 진학 정보를 공유하고 개인 연습을 관리했다. 그 결과 지원했던 국립 음악대 3곳을 모두 합격하며 목표했던 학과로 진학하는 사례도 생겨났다.

앞으로도 가정 형편이 어려워 꿈을 포기해야 했던 학생들을 도울 ‘꿈키움 전공레슨’ 프로그램을 강화해 음악가로서의 길을 꿈꾸는 학생들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한화 점자 달력

시각장애인을 위한 아날로그 형태의 ‘선물’
생활 속 불편을 이해하고 해소하려는 노력

새해, 새달을 맞이하며 달력을 한 장 넘길 때 마음이 짐 역시 달라진다. 중요한 기념일엔 동그라미를 그려 넣고 그날이 가까워 올 때면 하루하루가 설레는 경험도 해봤을 것이다.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어제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을 때가 많다. 달력

이나 플래너를 활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시중에 파는 달력과 플래너, 다이어리 등을 점자로 출판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IT 기기의 발달로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있다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들에게엔 진입장벽이 높다.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은 일정을 확인하거나 계획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아날로그 형태의 점자 종이 달력을 만들어 시각장애인들에게도 새로운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희망을 전달하고자 한화가 나섰다.

2000년부터 제작한 점자 달력은 현재까지 약 67만 부의 달력을 만들어 무료로 배포해 왔다. 일과 월을 점자로 인쇄해 눈으로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도 날짜를 가늠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양·음력 날짜뿐 아니라 절기와 기념일까지 점자로 별도 표기해 시각장애 관련 단체 및 개인들에게 매년 큰 호응을 얻어 왔다. 일반 달력과 달리 점자의 손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판이나 인쇄 작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뤄진다. 시각장애인의 전문적인 검수는 물론 실제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각장애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달력을 만들고 있다. 숫자의 크기와 농도를 보완해 올해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 단체와 개인을 통해 총 5만 개의 달력이 배포되었다.

“내일을 기다리는 기쁨”... 숫자 공부도 곁할 수 있어

점자 달력을 접한 시각장애인들은 마치 새로운 하루를 선물 받은 것 같으며 기뻐한다. 오늘이 며칠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 매 순간 더욱 뜻깊게 보내게 되고, 내일이 기다려진다는 것이다. 단순히 날짜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다. 시각장애 아동들은 점자 달력으로 숫자 공부를 시작하기도 한다. 점자 달력을 다이어리로 쓰거나 점자 달력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있다. 달력은 기본 달력 디자인 및 인쇄 공정도 함께 진행되어 시각장애인들의 가족이나 비시각장애인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100명의 자원봉사자들은 달력을 제작하는 과정에서부터 포장 및 배포 작업을 돕는다. 이런 경험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사소한 불편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시각장애인들의 생활에 편의와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문화로 번져가고 있는 것이다.



한화예술더하기

문화예술과 봉사활동을 결합한 나눔

청년 예술가들에겐 일자리 창출 기회도

2009년부터 10년째 이어져 온 ‘한화예술더하기’는 기존의 일반 자원봉사와는 조금 다르다. 문화예술과 봉사활동을 결합해 지역사회의 아동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로 임직원들이 봉사자로 참여하는데 2009년부터 2011년

까지는 국악·미술·연극·음악 분야의 문화 예술 교육용,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환경을 접목한 9가지의 예술 활동으로 환경 사랑을 실천했다. 2015년부터는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알리고자 가야금, 사물놀이, 전통무용 등을 가르치는데 ‘찾아가는 예술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이웃과 만나고 있다.

‘한화예술더하기’의 경우 사회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높여 평가받아 한국메세나대상(2011)과 행복나눔인상(2014)을 수상했다. 아동들이 창의적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할 뿐 아니라 지역 예술인들을 예술 강사로 참여시켜 경제적 지원과 안정적인 활동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다. 지역 협력기관과 NPO, 한화그룹 임직원 등 다양한 관계자의 협업이 빛을 발한 사례로 3년 단위로 테마를 리뉴얼하여 시의적절한 교육을 이뤄냈다는 평을 받기도 한다. 이는 매년 전문 연구진을 통해 성과측정을 하여 발전 방안을 도출, 이를 사업에 반영했기에 가능했다. 프로그램에 맞춰 신규 강사들을 꾸준히 발굴하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 것 역시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도움을 주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 사회공헌

희망을 전하는 클래식 교향악축제

서울 시민들을 위한 세계불꽃축제

대중을 향한 한화의 다채로운 공헌활동 역시 눈여겨보아야 한다. 한화가 후원하는 교향악축제는 대표적인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공헌활동으로 2000년부터 청중에게 클래식 음악의 진수를 선보이고 있다. 예술의전당과 협력 관계를 맺고 국내 시·도립 교향악단을 비롯해 중견 연주자부터 실력 있는 차세대 음악인들에게 예술의 전당에서의 공연 기회를 제공한다. 한화의 단독후원은 장기적 안목으로 이뤄져야 하는 기업의 메세나 활동의 성공사례로 손꼽힌다. 고품격 공연의 기회를 통해 국내 연주단체들의 실력 향상을 도모할 뿐 아니라 청중도 부담 없이 클래식을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축제로 자리 잡았다.

한화의 대표적인 문화 복지 프로그램인 '서울세계불꽃축제'는 서울 시민들이 기다리는 연간 행사가 되었다. 한강변의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불꽃을 통해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 시민들의 가슴 속에 내일을 향한 응원을 전한다. 이 프로그램은 일본과 미국, 중국, 이탈리아 등 세계적인 불꽃팀이 함께해 기쁨과 감동의 시간을 선사한다. 레이저와 영상, 음악을 접목한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멀티미디어 불꽃쇼로 수준 높은 공연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



대표와 직원 의기투합 이웃과 함께 행복 설계

(주)단에이앤씨종합건축사사무소의 목표는 튼튼하고 품격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하지만 그들의 설계도엔 사람의 웃음소리와 마음의 온기가 묻어났다. 성실한 리더와 이웃을 사랑하는 직원들 덕분에 도시 전체로 행복 바이러스가 전파 중이다.



자수성가한 형제 오너, 모두 아너 가입

바다 가까이 매력적인 건축물들의 등장으로 글로벌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는 도시 인천. 주민들을 위한 복합 문화 시설 단지와 대형 오피스텔,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기업들의 연구센터를 건립하는 데 (주)단에이앤씨종합건축사사무소가 빠질 수 없다. 이곳은 건축설계사무소로 시작해 CM 전문회사로 사업을 확장했는데, 건설공사의 기획부터 설계와 시공관리, 감리와 사후관리까지 건설사업관리(CM, Construction Management) 업무의 전 과정을 맡아 수행하고 있다. 올해로 창립 33주년을 맞은 (주)단에이앤씨종합건축사사무소는 흔들림 없이 꾸준한 성장가도를 달리며 탄탄한 실력의 증견 CM회사로 잘 알려져 있다. 알찬 내용의 비결이 뭔지 묻자 김태선 경영관리본부 부사장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존중하는 임직원들의 신념이라 말한다.

“도시개발 과정에서부터 주거 공간 개선까지 공간을 창조하는 저희의 업무는 인간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즉 새로운 행복의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죠. 건축 자재를 고르고, 동선을 구상하는 것 하나하나까지도 정직하게 사람을 위해 선택되어야 합니다.”

(주)단에이앤씨종합건축사사무소의 휴머니즘은 새로운 업무 방식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리더가 직원들과 신의를 맺는 것도 가장 중요한 방법이자 기업이 지역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경영 방식이다. 사람을 향한 사랑은 경영자들의 솔선수범으로부터 시작된다. 중소기업에서는 드물게 회장과 대표이사 두 사람 모두 아너 소사이어터에 가입한 것이다. (주)단에이앤씨종합건축사사무소가 공동모금회와 인연을 맺게 된 것 역시 김의복 회장이 아너 소사이어터 회원이 되면 서부터다. 2014년도 새해 시작과 함께 김의복 회장은 인천의 35번째 아너이자 전국 440호 아너가 되었다. 그리고 1년 후 김 아너의 동생인 김의식 대표이사 역시 64호 아너가 되었다.

직원들도 월급 쪼개 정기기부

두 형제는 어린 시절부터 넉넉지 못한 생활형편 속에서도 특유의 근검절약 정신으로 위기를 헤쳐나갔다. 사회에서 경제적 취약 계층이 갖는 외로움과 절망이 무엇인지 직접 느낀 만큼 어려운 이웃을 제 손으로 돕겠다고 다짐했다. 때문에 기업을 꾸리는 대표가 되고부터는 모교에 발전 기금과 후학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지역사회에서 두 형제는 이미 기부천사로 정평 나 있었다. 그들의 아너 가입 소식은 주변 이웃들과 직원들에게는 놀라움 대신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졌다. 형제 아너의 탄생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동생 김의식 아너는 “자수성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나를 믿어준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의 도움 덕분이다.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이제는 진정으로 더불어 살 수 있게 되어 뿌듯하다”며 더 많은 기업인을 향해 고액 기부 동참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힘든 시절을 함께 이겨낸 두 리더의 성장 스토리와 그들의 아너 가입은 직원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었다. 나눔과 지역 사랑만큼은 대기업 못지않다는 자부심을

갖게 한 것이다. 이후 직원들 역시 월급의 일부를 내놓는 착한 일터 기부를 시작하게 됐다.

나누는 용기에 응원을 더하는 사내문화

기업이 성장하면서 두 대표는 기업 내 나눔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많은 고민을 해왔다. 인천시 주거 문화 발전에 노력을 기울였기에 시민들로부터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 공동모금회를 만나기 전부터도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나눔을 실천해 왔다. 인천시민재단, 인하대학교, 인천시체육회,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해 연간 적게는 5,000만 원부터 많게는 4억 원 가까운 금액을 기부금으로 전달했다. 그리고 2016년 1월부터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랑의열매 착한일터 캠페인을 실시, 나눔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매달 5,000원, 1만 원, 혹은 1만 원 이하 끝자리 금액 중 원하는 만큼 정기 기부하는 방식이다. 총무팀 윤자영 과장은 올해 더 많은 직원들이 나누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다.

“튀어 오르는 불꽃처럼 아작은 미미하지만 이웃을 향한 직원들의 사랑에 좋은 제도와 기관이 합쳐지면 비바람에도 쉽게 꺼지지 않는 큰 불길이 되어 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직원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전 직원 정액 기부제나 펀드 조성 등의 방안을 계획 중입니다.”

처음엔 적은 금액을 기부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던 직원들도 있었다. 하지만 김의복, 김의식 대표는 금액의 크기보다 나눔을 시작한 직원들의 용기를 높이 샀다. 덕분에 직원들은 적은 금액이지만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데 동참한다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올해의 경우 더 많은 직원이 동참하도록 기부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는 것이 목표다.

“삶의 질을 높일 고품격 도시 창조를 위해 앞장서는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역 주민으로서 직원 모두가 건전한 마인드를 지녀야 하죠.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는 건강한 인재, 건강한 기업이 되는 데 착한일터 기부가 마중물이 되어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



(주)단에이앤씨종합건축사사무소는 1985년 창업 이후 건축설계 및 CM감리 분야에서 인천 소재 기업 중 가장 큰 규모의 회사로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을 5회 연속 인증받으며 고객만족에 충실하는 강소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착한가게가 있는 풍경_충남 천안

글 사진 조혜원(여행작가)



대한독립 만세! 천안삼거리에서 역사를 만나다

오랜 시간 만남과 헤어짐의 장소인 천안. 단순한 교통의 요지가 아니라 역사와 미식 여행을 할 수 있는 곳이다. 꽃다운 나이에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치며 자주 독립을 이루게 한 유관순 기념관, 시민들이 모여 만세운동을 했던 아우내장터, 이 모든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독립기념관까지. 후두과자를 오물거리며 역사와 현재가 교차하는 여행지를 돌아본다.

충남 1호 착한거리 지정 병천순대거리

두 개의 내를 아우른다는 뜻의 아우내. 병천순대거리는 아우내장터 순댓국밥으로 시작된다. 조선시대부터 경상도와 한양을 오가는 상인들이 모여들었던 아우내장터. 약 50여 년 전, 이곳에 돈육가공공장이 들어서면서 돼지 창자에 여러 가지 채소와 선지를 넣어 만든 순대를 만들었다. 아우내장터 내 몇몇 가게에서 순대와 순댓국밥을 팔던 것이 하나 둘 늘어 지금의 병천순대거리가 형성됐다.

지금은 20여 곳의 가게가 거리를 이뤄 각자의 방식으로 맛을 이어가고 있다. 병천순대는 돼지 뼈를 진하게 우려 육수를 내고, 창자 중 가장 가늘고 부드러운 작은창자를 사용해 순대를 만들어 돼지 누린내가 적고 쫄깃하다. 채소와 선지가 많이 들어 부러운 것도 특징이다. 이제는 장이 서는 날이 아니라도 병천순대를 먹기 위해 이 거리를 찾는 사람이 많다.

맛으로 알려진 병천순대거리는 이젠 나눔의 거리로도 유명해졌다. 지난 1월 15일 충남 최초의 '착한가게 거리'로 선정된 것. 병천순대거리 음식점 22곳 가운데 18곳이 착한가게에 가입하면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기로 약속했다.

18곳 중 가장 먼저 가입한 곳은 바로 '아우내장터순대'. 김일순 사장은 25년 동안 병천순대거리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다가 주차장이 넓은 건물을 새로 짓고 장사를 한 지 4년째가 됐다. 꾸준히 받은 사랑을 사회에 돌려주는 방법으로 사랑의열매를 택했다.

"많은 금액도 아니고 시작한 지도 오래되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이야기하지만, 사랑의열매에 기부하기 전에도 소소하게 기부를 해왔다. 어렵게 살아온 시절을 생각하면 다른 이를 도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씩스럽게 미소 짓는다.

유명한 맛집답게 메뉴는 아주 단순하다. 순댓국밥, 모듬순대. 국밥은 '하얗게' 혹은 '빨갱게' 주문할 수 있다. 더 얼큰한 걸 좋아하는 이는 '김치 얼큰이 순댓국밥'을 주문한다. 모듬순대를 주문하면 머리 고기와 속이 꼭 찬 순대가 나온다. 찹쌀가루, 깻가루, 야채와 선지가 듬뿍 든 토종 순대는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하다. 밤새 돼지 뼈를 고아 만든 육수는 진하고 걸쭉하다. 각자의 취향대로 들깻가루와 양념장, 청양고추를 넣는다. 고기와 순대가 그득 담겨 있어 어느 정도 먹어야 밥을 말할 수 있을 만큼 양이 많다. 직접 담그는 달큰한 양파 장아찌와 시원한 김치가

- 1 독립기념관 전경
- 2 병천순대거리 음식점 중 가장 먼저 착한가게에 가입한 '아우내장터순대' 김일순 사장
- 3 '아우내장터' 순댓국밥



국밥의 느끼함을 잡아준다. 툇게이트가 가까워 일부러 찾아오는 이들도 많고, 지나는 길에 꼭 들렀다 가는 이들, 혼자 국밥을 먹고 가족을 위해 포장해 가는 사람 등 다양한 연령대의 단골이 많다.

그날의 함성을 다시 한 번 유관순 열사 기념관

병천순대거리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유관순 열사 기념관이 있다. 1919년 4월 1일 아우내장터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은 전국 오일장 장터에서 일어난 만세운동 중 하나지만, 유관순 열사로 인해 유명해졌다. 이화학당 재학 중이던 유관순은 임시휴교령이 내려지자 고향인 병천으로 돌아와 서울의 3·1만세 운동 상황을 전하고 4·1만세 운동을 계획했다. 만세운동 당일 아우내장터엔 3,000명이 넘는 군중이 모였다. 유관순은 직접 만든 태극기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선창하며 거리를 행진했다. 일본의 무자비한 총격으로 유관순의 부모를 비롯해 19명이 사망했다. 유관순도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19세 꽃다운 나이에 순국했다.

유관순 열사 기념관은 열사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2003년 개관했다. 열사의 출생부터 순국까지 일대기와 아우내 독립만세운동을 재현한 디오라마 등을 둘러볼 수 있다. 특히 일제의 고문 도구인 벽관 체험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좁은 관에 들어가면 일본 고문관의 욕박지르는 소리가 흘러나온다. 어린 학생이 감당하기엔 가혹하고 잔인한 고문의 흔적은 관람객을 숙연하게 만든다.

유관순 열사 기념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유관순 생가지가 있다. 원래 빈터만 남아 있던 것을 1991년에 복원했다. 생가지 바로 옆엔 유관순이



1



2



3



4

여행정보

아우내장터순대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아우내순대길 40
 운영시간 : 07:00~21:00(연중무휴)

유관순열사 기념관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유관순길 38 유관순열사유적지
 운영시간 : 09:00~18:00(3~10월), 09:00~17:00(11~2월)
 입장료 : 무료

독립기념관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95
 운영시간 : 09:30~18:00(3~10월), 09:30~17:00(11~2월)
 입장료 : 무료

우정박물관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양지말1길 11-14 지식경제부공무원교육원
 운영시간 : 09:00~18:00
 입장료 : 무료

아라리오 갤러리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운영시간 : 11:00~19:00
 입장료 : 일반 3,000원, 학생 2,000원

다녔던 매봉교회가 있는데 유적지라기보단 작고 소박한 마을이라 천천히 거닐기에 좋다.

대한 독립의 모든 것 독립기념관

유관순 열사의 만세운동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한 독립의 과정에 대해 궁금해진다. 유관순 열사 기념관과 멀지 않은 곳에 독립기념관도 있으니 아이들뿐 아니라 역사 공부를 하고 싶은 여학생에게 천안은 최적의 도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립을 쟁취한 나라들은 저마다 기념관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독립기념관은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1982년 일본이 역사 교과서를 왜곡해 한국 침략을 정당화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이에 대대적인 반일 운동이 전개되면서 우리 민족의 수난과 자주독립, 독립운동을 기념하고 후손에게도 보여줄 수 있도록 국민 성금을 모금한다. 그렇게 모인 성금으로 1987년 8월 15일 천안에 독립기념관이 세워졌다.

독립기념관에 가면 가장 먼저 민족의 비상을 상징하는,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은 '겨레의 탑'이 맞이한다. 겨레의 집, 전시관, 자료실, 수만 명이 모여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겨레의 큰마당'이 400만㎡의 부지에 넓게 자리한다. 1995년에 철거된 구 조선총독부 건물의 자재로 조성한 '조선총독부 철거부재 전시공원'도 있다. 독립기념관 부설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가 독립운동에 관한 각종 도서와 자료를 정리, 보관, 연구하고 있어 독립기념관 홈페이지에 가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이번 3월 1일에는 삼일절 기념 만세운동 재현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시민으로 구성된 명예 독립운동가 1,919명과 3·1만세운동을 재현하고, 육군 의장대 시범, 태극 퍼포먼스, 무궁화 불펜 만들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천안에서 만나는 이색 박물관 우정박물관

우정공무원교육원 1층에 위치한 우정박물관은 무료인 데다 알차고 재밌는 체험도 할 수 있다. 단독건물이 아니라 교육원 건물에 있어 정문을 지날 때 당황할 수도 있지만, 당당하게 우정박물관에 왔다고 말하면 친절하게 안내해 준다. 교육원에서 만든 박물관이라 형식적인 전시 정도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깜짝 놀랄지도 모른다. 우선 한 세기가 넘게

- 1 유관순 열사 기념관
- 2 3·1만세운동 재현 행사
- 3·4 아라리오 갤러리 조각광장과 내부 전시실
- 5·6 우정공무원교육원 1층에 위치한 우정박물관



많은 사연과 이야기를 품고 달렸던 우편열차가 관람객을 맞이한다. 열차 내부는 전시공간으로 꾸며져 있고 바로 옆엔 사람 키만 한 우체통이 서 있다. 심지어 진짜 우체통 역할을 한다. 여행 기념으로 엽서를 부치면 나중에 배달된다. 빨간 우체통같이 생긴 입구 안내소에서 10원짜리 우표가 붙은 종이에 기념 도장을 찍는 것으로 우정박물관 관람이 시작된다. 규모는 작지만 한국 우정의 역사부터 그간 집배원 복장의 변화, 세계 각국의 이색 우체통과 의상 등 알차게 꾸며져 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퍼즐, 우표 안에서 틀린 그림 찾기 등의 미디어 전시가 이어져 지루하지 않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전시장을 돌아 나오면 세계 집배원 복 입어보기와 탁본 체험을 할 수 있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 공간 아라리오 갤러리

신세계백화점 앞 넓은 공원이 야외 조각광장이다. "빨간 가방 앞에서 보자"라는 말이 자연스러운 천안 시민들. 거대한 조각품 사이를 바쁘게 움직이는 시민들에게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들게 한다. 아라리오 갤러리에선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작가'로 불리는 데미안 허스트의 조각 작품 '찬가(Hymn)'를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키스 해링의 '줄리아(Julia)', 인도 수보드 굽타의 '통제선(Line of Control)' 등 세계적인 작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모두 김창일 회장의 수집품인데 시민들이 일상에서 예술을 접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조각광장을 만들었다. 아라리오 갤러리 내부 전시실에선 '마지막 여행은 달에 가고 싶다'는 주제로 지난 2017년 7월 별세한 고 정강자 작가의 회고전이 5월까지 열린다. ❀

평창·강릉에서 외쳐보는 “대~한민국”

공동모금회가 문화소외계층 1,400명을 평창·강릉으로 초대해 동계올림픽의 환희와 강원도의 지역 문화를 경험하게 하는 올림픽 체험 및 공정여행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지원대상자들은 한국 선수들의 선전에 환호하는가 하면 올림픽파크의 축제 분위기와 강원도의 풍광을 즐기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문화소외계층 1,400명에 동계올림픽 체험 기회

KTX 경강선 개통으로 평창동계올림픽 현장 진입은 2시간 안에 가능해졌지만 30만~40만 원을 호가하는 경기장 입장권 가격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고만고만한 생활을 이어가는 소외계층에게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축제는 또 하나의 사회적 ‘차별’이 되기도 했다. 공동모금회는 그간 소외계층의 사회참여 확대 사업을 통해 소통과 희망,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지원사업을 펼쳐왔다. ‘평창동계올림픽과 함께하는 소외계층 공정여행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들에게 올림픽의 활기와 여행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며 구성원 모두가 동등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사회공동체의 비전을 공유하게 했다. ‘하나된 사랑! 가자 평창으로! Love Connected’를 슬로건으로 추진된 ‘평창동계올림픽과 함께하는 소외계층 공정여행 지원사업’은 참가자들에게 동계올림픽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자들은 “TV로 보는 올림픽과 경기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는 올림픽은 큰 차이가 있다”며 올림픽 경기 현장의 일원이 된 것에 대해 큰 기쁨을 드러냈다. 경기도 구리시에서 온 이선형(60)씨는 아이스아레나에서의 피겨 스케이팅 관람 소감에 대해 이렇게 얘기한다. “3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이라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사는 일에 매여서 이렇게 경기장에 온다는 건 인간생심 꿈도 못 꿴어요. 하지만 사랑의열매의 도움으로 올림픽 경기를 현장에서 지켜보는 영광을 누리게 됐네요. 동계올림픽이라는 별천지의 세계, 그 역사의 현장에 제가 있었다는 감격의 순간을 오래도록 간직하겠습니다.”



피겨 스케이팅 관전에 이어 대관령·오죽헌 탐방

‘평창동계올림픽과 함께하는 소외계층 공정여행 지원사업’은 전국에서 선별된 1,400명의 지원대상자가 함께한 대규모의 문화 이벤트였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가 공동 수행기관으로



참여했으며 흠어들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시설 거주 아동 등 참여 대상도 다양했다. 지원대상자들은 올림픽 개최 기간 동안 11개 그룹으로 나뉘어 2박 3일 일정(일부 그룹은 1박 2일)으로 경기 관람과 강원 지역의 고유문화를 경험하며 삶의 활기를 되찾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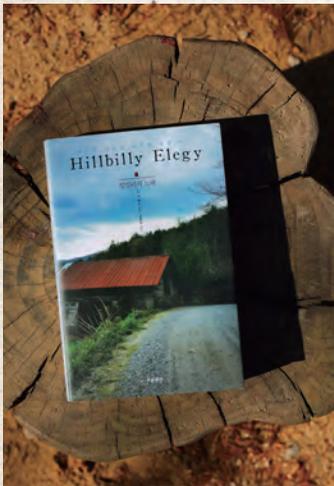
참가자들은 경기 종목 중 가장 인기가 높은 피겨 스케이팅 경기 관람을 이번 프로그램의 최대 하이라이트로 꼽았다. 또한 오죽헌, 대관령, 허브나라, 월정사 등 강원도의 명소 방문을 통해 지역의 특색과 역사를 이해하게 하는 공정여행의 유익함에 대해서도 높은 호응도를 보여주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함께하는 소외계층 공정여행 지원사업'은 SK하이닉스 후원금과 하나금융그룹 지정기탁, 공동모금회 기획사업 예산으로 운영됐으며 총 소요 예산은 13억 원에 이른다. ❀

“그들도 당당한 우리 사회 일원임을 확인시켜”

사업 주관 **신용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무총장

'평창동계올림픽과 함께하는 소외계층 공정여행 지원사업'은 매우 혁신적인 프로그램이다. 기초 생계 지원을 필두로 하는 빈곤 해결과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포괄하는 질병 치유 등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은 늘 생계와 생존을 논하는 절박한 상황에서의 프로젝트가 대부분이다. 그에 비하면 '평창동계올림픽과 함께하는 소외계층 공정여행 지원사업'은 좀 여유로운, '빈곤 타파'와 '질병 치유'와는 얼마간 거리가 있는 부수적인 지원사업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지원대상자들이 보여준 적극성과 활기에 많은 것을 깨달았다. 지나치게 조용하고 타인에게 다가가는 일을 기피하는 그들이 불편한 몸과 마음을 이끌고 평창·강릉행에 나서는 모습은 내 상상력의 빈곤을 여지없이 깨뜨렸다. 올림픽 현장에 선다는 기대와 흥분은 복잡한 보안검색 과정에서도 그들을 의연하게 만들었다. 더구나 한국 선수들의 승리를 위해 아이스아레나의 모든 관람객과 하나가 돼 함성을 외치고 박수를 보내는 동안 자신이 우리 사회의 일원임을 확인했으며 그 뿌듯함과 가슴 벅침은 이들의 소외감 극복에 커다란 보탬이 됐다. 스포츠와 여행 등 문화 체험을 통한 사회 참여와 소통의 기회가 이들에게 더 많이 주어지기를 바란다.

나눔을 확산하고 소외를 극복해 줄 두 권의 책 잘 살아야 하는 이유, 베풀어야 하는 까닭



가난을 이겨낸 자의 가슴 뭉클한 무용담

《힐빌리의 노래》

얼마 전에 서울 번두리의 한 빈민 지역을 가본 적이 있다. 그 지역의 가난한 여고생들이 신촌 대학가에 놀러갔다가 가슴에 책을 안고 다니는 근사한 옷차림의 여대생을 보면서 울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분명 가난은 이 눈물 이상의 쓸쓸함과 시련을 지니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를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낸 미국 백인 노동계층의 정치적 반항과 심리적 기저가 담겨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된 책, 《힐빌리의 노래》. 하지만 이 책의 주제는 포퓰리즘 복지의 실패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가난의 한복판에서 희망을 찾아 도전하는 산골짜기 백인 청년의 열정과 사랑이다.

저자 제이디 밴스(J. D. Vance)는 자신의 유년 시절을 '세상 끝으로 내달리는 롤러코스터의 맨 앞줄에 앉은 꿀'이라고 요약한다. 일찌감치 가족을 버리고 떠난 아버지, 두 달에 한 번씩 남자를 갈아치우는 약쟁이 엄마.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 아버지 후보자들의 귀여운 아들 역할을 자처하는 생존본능을 발휘해야 했다. 하지만 약물검사용 소변을 뒤달라고 요구하는 참담한 엄마 앞에선 모든 걸 내려놓는 외로운 아이가 되고 만다. 하지만 그 아이는 예일 로스쿨 입학에 이어 실리콘밸리를 움직이는 전도유망한 사업가로 변모했으며 정계 입문을 권유받는 '영향력 있는 작가' 타이틀까지 거머쥐게 됐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힐빌리 보이, 밴스를 구원해 내는 외할머니의 활약상이다. 한창때는 알코올 중독에 빠진 남편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들이댈 만큼 험악한 성격이었지만 노동의 가치와 아메리칸 드림을 숭상했던 그녀의 신념은 밴스가 찢어지게 가난한 형편에도 굴하지 않게 하는 성실과 낙관을 지니게 한다.

공동모금회가 취약계층의 아동·청소년 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기금은 연간 846억 원에 이른다(2016년 기준). 밴스의 외할머니와 같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쏟는 보호자가 더 많아진다면 이 기금은 좀 더 긴급한 사안에 전용될 수도 있고 금액의 스무 배 이상의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이다. 매사가 서툰고 불안한 아이가 가능숙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게 하는 가정의 힘, 어른의 역할을 새삼 일깨우는 책이다.

*힐빌리(Hillbilly·러스트벨트 지역을 비롯한 미국 동부의 쇠락한 공업지대에 사는 가난한 백인을 의미함)



가난과 범법에 평생 갇혀 지내야 하는 힐빌리의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은 제이디 밴스의 용기는 인내가 있어서 좋다. 유니세프의 엘리트의식과 관료주의를 모험과 혁신으로 진화시킨 짐 그랜트의 신념은 현실적이고 무모해서 더 좋다. 두 권의 책이 자신과 나눔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한다.



인간애를 실현한 자의 빛나는 삶 《휴머니스트 오블리주》

‘아동 생존 혁명’을 위해 독재자, 살인광과도 협상을 마다하지 않은 전략가. 그러나 지금은 역사에 묻힌 유니세프 3대 총재 짐 그랜트(Jim Grant)의 부활을 알리는 책이 나타났다. 그런데 방정환도 울고 같이 추종불허의 아동 지킴이는 신문은커녕 구글 검색에도 나오지 않는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남미의 오지, 오만분의 일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는 문명이 끼워주지 않는 곳의 어린이를 위해 일한 그를 사람들은 알고 싶어 하지 않는가 보다. 고통스럽게 죽어 가는 소년 소녀들이 신문 표제 기사에 등장하는 일이 드문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전직 유니세프 직원들 중에는 그랜트에 관해 이야기할 때면 목이 메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그랜트가 남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열정과 영감을 그들이 동경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랜트는 정부, 지역사회, 후원자가 어린이들을 돌보고 빈곤과 싸우는 일에 더 많은 돈을 내놓고, 더 많은 일을 하도록 그들의 심금을 울리는 도덕적 자극을 주곤 했다. 1980년 그랜트가 총재에 취임하면서 순항하는 데에만 만족했던 ‘백인 남자들로 이루어진 배타적 클럽’ 유니세프는 초고속 약진 모드로 돌변하게 된다. 그리고 태산 같은 관료주의 장벽은 거둬지는 공헌에도 불구하고 그를 새로운 딜레마에 빠지게 했다. 넘쳐나는 에너지와 공감과 연민의 정이 두드러졌지만 그랜트는 감정적이거나 감상에 치우친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어린이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눈물을 글썽이지 않았다. 그랜트에게 진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아이들의 고통이 아니었다. 그는 어린이들이 목표인 동시에 수단도 되는 트로이의 목마라고 말하곤 했다. 어린이들을 통해 자기의 주장과 발전의 혜택을 모든 사람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 것이다.

재임 15년 동안 유니세프 재원을 세 배로 늘린 이 탁월한 행동가이자 세일즈맨의 일대기는 선의만으로 나눔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는 현실 속 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새로운 의욕과 행동 방식을 전할 것이다. ❀

*유엔국제아동긴급기금(유니세프, United Nations Children's Emergency Funds): 전후 유럽과 아시아의 어린이들에게 의료, 분유, 보건물품을 공급했던 유엔의 상설 기관. 이후 유니세프는 본래의 창립 취지를 확대해 긴급 구호를 넘어 불우한 환경 속에 사는 어린이를 돕는 기관으로 진화했다.

3년간 아너 급증·소액기부 ‘착착착착’ 활발 대구엔 ‘나눔나무’가 살아요

지난 1월 31일 종료된 희망2018나눔캠페인에서 대구 공동모금회가 가장 먼저 사랑의온도 100도를 달성하며 국채보상운동으로 대표되는 대구 시민들의 나눔정신을 보여줬다. 이처럼 대구의 나눔문화가 활발해진 데에는 아너 소사이어터 회원들의 역할이 크다.

17개 지회 중 첫 번째로 사랑의온도 100도 달성

‘익명의 나눔천사’라고 하면 떠오르는 기부자가 바로 ‘대구의 키다리아저씨’다. 매년 연말이 되면 대구 공동모금회에 전화 한 통이 걸려온다. ‘건물 앞이니 잠깐 보자’고 하고는, 담당자에게 수표 한 장만 전달하고 사라져 버린다. 2012년부터 6년간 전달된 기부금만 8억 4,000여만 원으로, 대구 공동모금회의 역대 누적 개인기부액 중 가장 많은 액수다.

키다리아저씨처럼 대구에는 익명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이들이 많다. 드러내놓고 자신의 나눔을 알리는 것을 쑥스러워하기 때문. 이러한 나눔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대구 공동모금회는 나눔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기부자 예우와 기부금 사용 내역 공유 등 기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기존 기부자들은 대구 공동모금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혼자 조용히 했던 기부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언젠간 기부를 해야지’ 생각하고 있었던 시민들도 다른 기부자들의 나눔 소식에 자극받아 동참하는 사례가 늘었다. 특히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들이 증가하면서 대구의 나눔 분위기는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아너 누적 회원 115명... 최근 3년 새 77명 탄생

대구의 첫 아너 소사이어터는 2010년 탄생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출발이 늦었다. 이후에도 가입 수는 많지 않았는데, 2015년부터 최근 3년 사이 77명이 가입하면서 누적 회원이 115명이 됐다. 이는 단순히 기부금 증가의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대구 역시 기업기부의 비중이 높다. 2014년까지만 해도 대구의 개인기부는 2만 1,000여 명으로, 전체 대구 시민의 0.9%에 불과했다. 특히 이 중 정기 기부자는 0.3%에 불과했다. 이에 대구 공동모금회는 개인기부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중 하나가 바로 아너 회원의 증가라고 볼 수 있다.



3년간
아너 77명
증가

67% 성장

대구 공동모금회의
나눔 이야기

100°

6년 사이
100억 원 이상
증가

2011년 65억 8,100만 원
→ 2017년 163억 7,700만 원

희망2018나눔캠페인
전국 최초
100도 달성

(1월 16일)

전국 최초
나눔문화관
조성

(2017년 2월 1일,
지하철 역사 내)



대구 공동모금회 직원들

대구 공동모금회는 매월 아너 클럽 모임을 통해 회원 간의 친목과 정보 교환의 기회를 마련하고, 모금회의 배분과 모금 내역 등을 보고하며 신뢰를 쌓아갔다. 또한 지역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릴레이식 기획 기사를 만들어 아너 회원들의 나눔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이러한 홍보를 통해 대구 시민들은 아너 소사이어티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고, 이미 아너에 가입한 회원들은 모금회의 투명성을 믿고 지인들에게 추천하면서 가입 수가 증가했다.

2016년 11월에 부부 아너로 가입한 임길포(주우리텍 대표이사도 모금회의 투명성을 믿고 가입한 대표적인 기부자다. 원래 별도의 장학재단을 만들어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했던 임 대표는 아너 가입 후, 대구 공동모금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배분을 보면서 '믿어도 되는 기관'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1년 뒤인 지난해 11월, 5년간 총 50억 원의 성금을 기탁하기로 하면서 대구 공동모금회의 역대 최고 기부액이 됐다.

13년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눔을 실천해 왔던 기부자가 평소 지인들과 언론을 통해 아너 소사이어티에 대한 내용을 듣고 가입한 경우도 있다. 대구 동구에서 과수농사를 짓는 강위태 기부자가 그 주인공. 그는 지난 1월 11일 아너에 가입하면서 '나의 나눔이 많은 이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4년까지만 해도 대구의 개인 기부자는 2만 1,000여 명으로, 전체 대구 시민의 0.9%에 불과했다. 특히 이 중 정기 기부자는 0.3%에 불과했다. 이에 대구 공동모금회는 개인 기부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중 하나가 바로 아너 회원의 증가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소액 기부 ‘착한대구캠페인, 착!착!착!착!’도 한몫하고 있다”

소액 기부 활성화를 위한 ‘착착착착’ 캠페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증가와 함께 대구 지역에 나눔문화가 불붙게 된 것은 ‘착한대구캠페인, 착!착!착!착!’도 한몫한다.

이 캠페인은 2016년 7월, 침체된 대구 지역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시작한 것으로, ‘기부가 기부자로 하여금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 아래 착한시민, 착한가정, 착한가게, 착한일터 등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부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네 가지 기부 방법 중 착한시민은 3,000원 또는 5,000원 등 소액으로 정기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눔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시민들이 직접 느끼며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나눔문화의 영향으로 동구 안심 1동은 300명의 기부자가 정기기부에 참여하면서 대구 첫 ‘착한마을’이 됐다. 특히 안심 1동은 대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주민들이 앞장서서 나눔을 실천하며 더 함께 행복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나눔에 동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대구 공동모금회는 앞으로 개인 정기 기부자를 1%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소액기부 운동을 꾸준히 펼치고, 나눔의 기쁨을 알 수 있도록 기부자와 끊임없이 소통할 것이다. 더불어 올해는 어려운 이웃뿐 아니라 그들을 돌보는 복지사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대구 지역에서는 단 한 명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행복한 대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박용훈 대구 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진심으로 다가서니 나눔이 쌓여가네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뒤,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직업을 갖고 싶었다. 졸업 후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현장에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어 2000년 충북 공동모금회에 입사해 18년째가 됐다. 이후 인천, 울산 등 여러 지역을 거쳐, 2015년 2월 대구 공동모금회 사무처장으로 부임했다.

박용훈 사무처장에게 대구는 낮은 지역이었다. 지역적 연고가 없다 보니 막막하고, 지

역 성향을 파악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했다. 박 사무처장이 할 수 있었던 일은 그저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뿐이었다. 3년간 기업이나 기관 등 문이 닳도록 방문하며 지역 나눔 활성화를 위해 도움을 요청했다. 매일 아침마다 지역 신문을 펼쳐 기업이나 기부자 소식이 있으면 따로 정리해 인사를 건네는 등 끊임없이 기부자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찾아다녔다.

“3년간 부지런히 움직이다 보니 이제는 급할 때 전화나 문자로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됐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는 진심이 통한다고 믿는다. 진심으로 다가가 나눔을 전하니깐 동참해 주시는 것 같다.”

복지 현장의 실무자들과 소통에도 신경

박용훈 사무처장의 소통은 기부자로만 그치지 않는다. 그는 직원들에게 항상 복지 현장이나 행정기관 등 실무자들과의 소통을 강조한다. 이에 대구 공동모금회는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해 현장의 소리를 듣는다. 이러한 노력은 지원 대상자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를 지원할 수 있어 기부자와 수행기관, 대상자 모두 만족도가 높다.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한다. 해보고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설정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이미 또 다른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와 구성원들은 대구가 나눔의 선두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볼 것이다.”

사랑의열매 지난해 총 5,996억 원 모금 개인기부 비율을 더 높여라

공동모금회의 2017년 연간 모금액(성금)은 5,996억 원. 지속되는 불경기와 기부 시스템에 대한 불신 속에서 많은 모금단체가 저성장세를 보였지만 공동모금회의 모금액은 예년 기록을 넘어섬에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기부에 편중돼 있는 비율은 2017년에도 개선되지 않았으며 70%에 달하는 기부 무경험자 수치도 낮추지 못하고 있다.



5,996억 원. 2017년 한 해 동안 공동모금회에 접수된 성금 총액이다. 국내의 많은 모금단체는 최근 몇 년 사이 ‘마이너스 성장’ 혹은 ‘저성장’이라는 사이클 속에서 고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새희망씨앗, 이영학 사건 등 유독 기부문화에 찬물을 끼얹는 부정적인 이슈들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도 공동모금회가 모금목표를 달성한 이유는 ▲기업 사회공헌의 저변 확대 ▲‘아너 소사이어티’(1억 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라는 차별화된 고액기부클럽의 성장세 ▲모금 포트폴리오 다변화(착한일터, 착한가게, 착한가정, 나눔리더, 나눔리더스클럽 등) 등이 결합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업기부가 67%… 대폭 확대 어려운 상황

전년 대비 기부금 변화 상황을 살펴보니, 기업기부는 100억 원(3.6%) 늘었고, 개인기부는 12억 원(1%) 줄었다. 기업기부만 놓고 봤을 때, 지난해는 ‘전경련 없는 기업기부금 집행의 원년’이었다. 매년 연말이면 삼성의 공동모금회 기부금 액수가 얼마인지 초미의 관심사였고, 삼성의 기부액수가 바로미터가 되어 다른 기업들도 기부금액을 십시일반 나눠왔다. 하지만 미르·K재단의 부작용으로 이런 전통이 사라지면서, 기업기부에 관한 불확실성이 늘었다. 또 최근 몇 년 사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 사회공헌팀과 CSR 팀이 체계를 갖추고 이른바 ‘전략적 사회공헌’이 늘면서, 개별 기업들의 맞춤형 사회공헌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여건을 감안, 공동모금회에선 향후 기업기부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실행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너클럽은 히트 모델… 기부자 유지가 중요

개인기부를 늘리기 위해 공동모금회는 ‘착한일터’(월급의 일정액을 정기기부), ‘착한가게’(매월 수익의 일부를 기부), ‘착한가정’(부모 또는 자녀 이름으로 매달 2만 원 정기기부), ‘아너 소사이어티’(1억 원 이상 고액기부) 등을 꾸준히 확대해 오고 있다. 게다가 올해 새롭게 ‘나눔리더’(100만 원 이상 중소액 기부), ‘나눔리더스클럽’(모임·단체가 1,000만 원 이상 기부 또는 약정) 등을 시작했다. 아너 소사이어티가 벤치마킹한 미국의 토크빌소사이어티는

최근 5년간 연말연시 모금캠페인 실적

(단위 : 억 원)

연도	희망2014캠페인 (2013.11.20 ~2014.1.31)	희망2015캠페인 (2014.11.20 ~2015.1.31)	희망2016캠페인 (2015.11.23 ~2016.1.31)	희망2017캠페인 (2016.11.21 ~2017.1.31)	희망2018캠페인 (2017.11.20 ~2018.1.31)
목표액	3,110	3,268	3,430	3,588	3,994
모금액	3,173 (삼성그룹 특별성금 포함 시 4,295)	3,287	3,500	3,915	4,003

최근 5년간 연간 모금 실적

(단위 : 억 원)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모금액	4,546	4,715	5,227	5,742	5,996
	5,668 (삼성임직원 특별기부금 1,122억 포함 시)	5,833 (세월호 특별성금 1,118억 포함 시)			

1,000만 원 이상 고액기부자들의 모임이다. 1,000만 원이 아닌, 1억 원을 선택한 것은 지금 보면 탁월한 모금 전략이었다.

대부분의 해외 대형모금기관에선 모금액별로 중소기업, 고액, 초고액, 유산기부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게다가 처음에는 중소기업자로 참여했다가, 몇 년 지나면 고액기부자로 유도하는 등 ‘기부자 포트폴리오 관리’ 또한 체계적이다. 중요한 것은 개인기부를 확대하기 위해선, 기업기부와는 종류가 다른 ‘고도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모금한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개별 피드백을 해주는 소위 ‘후원자 관리’가 핵심이다. 만약 후원자 관리를 소홀히 하면, 기껏 힘들게 기부자로 초청했어도 금방 후원을 끊는 경우가 다반사다. (해외의 ‘기부지속기간’은 7~8년임에 비해, 우리나라는 2~3년밖에 안 된다) 이 때문에 새롭게 기부자를 늘리는 것뿐 아니라, 기부자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투명성도 좋지만 ‘임팩트’ 소통도 강화해야

무엇보다 공동모금회가 국내 모금기관의 만형으로서 할 일이 있다. 29.8%에 불과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부참여율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다. ‘기부 무경험자’들이 70%가 넘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기부의 즐거운 첫 경험을 할 기회를 줘야 한다. 특히 ‘기부 유경험자’와 ‘기부 무경험자’ 모두 기부단체를 선정할 때 고려사항으로 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최우선으로 꼽고 있다. 단체의 투명성과 정보 공개를 앞장서서 이끌어야 하는 이유다.

지난해 미국 유니티드웨이를 포함, 인디펜던트섹터, 가이드스타USA 등 비영리 중간지원기관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는 ‘임팩트(Impact)’였다. 투명성과 효율성 중심이었던 커뮤니케이션해 온 지난 30년을 반성하며, ‘당신의 기부금으로 우리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임팩트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는 흐름을 읽을 수 있었다. 이 흐름에서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5,966억 원이 만들어낸 경이로운 임팩트에 관한 소통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면, 2018년에도 따뜻한 손길을 나누고 싶어 하는 기부자들의 행렬이 이어질 것이다. 🍀

현장

글 김정아 사진 공동모금회

설 맞아 25만 명에 117억여 원 지원

훈훈한 명절



설은 민족 최대의 명절이지만, 소외 이웃들에게는 평소보다 더 춥고 외롭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들 모두가 따뜻하고 사랑 가득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의열매는 지난해 설 지원보다 5억 5,000여만 원이 늘어난 117억여 원을 지원했다. 대상은 지자체를 통해 선정된 복지시설 2,861개 기관과 저소득 취약계층·홀몸노인·장애인·노숙인·쪽방거주민 등 취약계층 25만 3,012명이다. 이번 지원금과 물품은 중앙회와 전국 17개 시·도 지회를 통해 설 명절 전후로 전달됐다.

봉사단 '설 행복나눔 키트' 제작도

공동모금회 중앙회는 전국 1,200여 개 사회복지시설과 2만 8,000

여 명의 저소득 취약계층에 부식품 10억 원어치를 지원했고, 서울 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시설 55개 기관과 취약계층 2만 명에게 12억 원을 지원했다. 또한 부산 공동모금회는 전통시장 상품권 4억 원을 포함해 9억 9,600여만 원을 8개 기관, 2만 3,200여 명에 지원했고, 인천 공동모금회는 19억 8,600여만 원을 지원했다.

소외 이웃들에게 전달할 물품을 모두가 함께 만든 곳들도 있다. 경북 공동모금회는 지난 2월 6일과 8일, 칠곡군·경산시 나눔봉사단과 경북 어니 회원, 사랑의열매 임직원들이 함께 모여 '설 행복나눔 키트' 지원 행사를 펼쳤다. 떡국떡, 라면 등 11종의 생활식료품을 담은 560박스를 직접 포장하고, 칠곡군 저소득 장애인 300가구와 경산시 홀몸노인·다문화가정 260가구에 전달했다. ❀

사랑의열매 나눔체험관 언제든 열려 있어요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 옆에 위치한 나눔체험관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시 개방된다.

2016년 12월 오픈한 나눔체험관은 체험과 놀이를 통해 나눔의 가치와 소중함을 인식하고, 일상 속 나눔 실천을 다짐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이다. 사랑의열매 소개부터 기부자와 지원 대상자들의 이야기가 담긴 영상을 볼 수 있고, OX퀴즈와 게임 기기를 통해 나눔을 쉽게 배울 수 있게 했다. 또한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휠체어나 컴퓨터 기기를 직접 체험하면서 그들의 불편함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처음에는 유아 및 초·중·고 학생들의 견학 장소로 활용되면서 나눔교육의

장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랑의열매는 더 많은 사람이 편하게 나눔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상시 개방했다. 나눔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방문이 가능해 지난해에만 4,000명이 넘게 다녀갈 정도로 도심 속 나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사랑의열매 나눔체험관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개방되며, 학생은 물론 대학생·직장인·학부모 등 일반인들도 누구나 편하게 관람할 수 있다(일요일 포함한 공휴일 휴관/월요일은 단체 관람만 가능). 사랑의열매 홈페이지(www.chest.or.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문의는 나눔교육팀(02-6262-3193)으로 하면 된다.



서울



서울 공동모금회 '따뜻한 설 만들기' 행사 진행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윤영석)는 2월 6일 서울시 중구 사랑의 열매 대강당에서 '2018년 서울 사랑의열매와 함께하는 따뜻한 설 만들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설을 맞아 서울 공동모금회는 집희망성북주 거북지센터(센터장 김선미)와 함께 성북구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떡국떡, 사골국, 캔참치, 김, 햄, 담요 등을 담은 '희망박스' 포장 행사를 진행하고 각 가구에 전달했다.



남산공원에 나눔의 상징 사랑의열매 조형물 설치

2월 9일 서울 공동모금회와 한국사도공업(주)(대표 한광수, 이기선)은 서울 남산공원에서 사랑의열매 조형물 설치식을 진행했다. 이번에 서울의 명소 남산공원에 설치된 나눔의 상징 사랑의열매 조형물은 서울 시민들에게 나눔의 의미를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사랑의열매 조형물 설치식 기념으로 '남산공원에서 사랑의열매를 찾아라!' 이벤트가 SNS를 통해 진행 중에 있다.

세종



한국쌀전업농 세종시연합회, 백미 10kg 100포 기탁

(사)한국쌀전업농 세종시연합회는 2월 12일 세종시청을 방문해 백미(10kg) 100포를 세종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홍영섭)에 기탁했다. (사)한국쌀전업농 세종시연합회는 설 명절 때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백미를 기탁하고 있다. 이번에 전달한 백미는 세종 공동모금회를 통해 세종 지역 내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에 전해질 예정이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설 맞이 사랑의 물품 전달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이 2월 14일 1,300만 원 상당의 설 맞이 사랑의 물품을 세종 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은 매년 명절마다 사회복지시설과 경로당에 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아동복지시설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날 물품은 떡국떡, 화장지, 라면,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세종 지역 사회복지시설 및 경로당에 지원됐다.



푸른병원 도내 '착한가게 1,000호점'

충북 착한가게 1,000호점이 탄생했다. 주인공은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푸른병원(병원장 황찬호)으로 1월 17일 충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명식)와 푸른병원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한가게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황찬호 병원장은 “내부적으로는 환자 한 분 한 분을 가족처럼 소중히 생각하고 사랑과 봉사를 다하는 병원으로, 대외적으로는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병원이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충북교육청 학생사랑 실천 성금 전달

1월 26일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지난해 1년간 '학생사랑 실천운동'을 통해 모은 6,474만 860원의 성금을 충북 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학생사랑 실천운동은 도내 교직원 중 희망자에 한해 매월 급여에서 1계좌(1,000원) 이상을 학생들을 위해 기부하도록 하는 캠페인이다. 김병우 교육감은 충북 공동모금회에 난치병 학생 의료비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생활비로 지원해 달라며 해당 성금을 전달했다.



화승그룹, 이웃사랑 성금 1억 원 전달

화승그룹(회장 현승훈)은 1월 22일 부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정택)를 찾아 1억 원의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했다. 화승그룹은 직원들과 저소득층의 1대 1 멘토링 프로그램, 교육, 문화, 예술 부문에 후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박동호 화승엑스빌 대표는 “지역에서 성장한 우리 기업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앞장서서 사회 공헌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기부에 동참하게 됐다”라고 기부 이유를 밝혔다.



송연익 에스엠산업 대표, 부산 첫 나눔리더

1월 25일 부산의 첫 나눔리더로 송연익 에스엠산업 대표가 가입했다. 송연익 대표는 연말 개인기부가 많이 줄었다는 보도를 접하고, 부산 공동모금회를 찾아 100만 원을 전달했다. 평소 나눔에 관심이 많았던 송 대표는 올 초에도 '부산-부산에 가면' 전시수익금 1,000만 원을 기부한 바 있다. 송 대표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기부문화의 활성화가 더 필요한 것 같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더 많은 사람이 동참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강원



한국도로공사, 1억 원 상당 동계올림픽 경기 입장권 등 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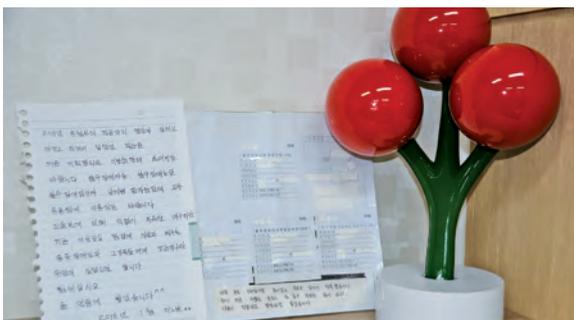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1월 15일 취약계층을 위한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 1,447매와 패럴림픽 입장권 1,200매를 강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만우)에 전달했다. 이강래 대표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전 세계의 축제인 만큼 모두가 함께 즐기는 올림픽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입장권은 동계올림픽 붐 조성과 취약계층의 관람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저소득 노인, 다문화가정 등에 우선 전달됐다.



인컴즈 임직원들, 이웃돕기 성금 482만 원 전달

1월 30일 (주)인컴즈(대표 최용) 임직원들이 희망2018 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482만 원을 기탁했다. 인컴즈 임직원들은 기부 포비아 및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관심이 쏠려 기부 감소로 인해 사랑의온도탑 온도가 전년에 비해 낮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번 기부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최용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사랑의 온도를 높이는 데 잘 쓰이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경남



익명의 나눔천사, 모금회 계좌로 2억 6,400여만 원 기부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철수)는 익명의 기부자가 공동모금회 계좌로 2억 6,400여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남 공동모금회의 개인기부 중 두 번째 고액 기부에 해당한다. 기부자는 편지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자 2011년부터 지금까지 매월 저금을 넣어왔다”고 전했다. 한편 기부금은 경남 내의 저소득가구와 사회복지기관에 지원하되, 기부자의 뜻을 존중해 장애인 분야를 중심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국남동발전, 문화소의 가정 평창올림픽 관람 지원

경남 공동모금회는 한국남동발전과 함께 도내 문화소의계층층의 평창올림픽 관람지원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남 도내 취약계층 중 문화 혜택이 적은 가정을 대상으로 2월 10~11일, 19~20일에 진행됐으며, 올림픽 경기 관람은 물론 관광픽 탐방도 함께 이루어 가족 여행의 기회를 제공했다. 사업에 소요되는 올림픽 경기 관람 및 문화체험과 숙박 등 제반비용 전액은 한국남동발전의 지원으로 마련됐다.

경기



경수고속도로, 이웃돕기 성금 3,000만 원 기부

경수고속도로(주)(대표 박종혁)는 2월 7일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순선)에 성금 3,000만 원을 전달했다. 경수고속도로(주)는 지난해에도 경기 공동모금회의 도내 아동·청소년 심리·정서 지원사업 및 저소득 어르신 생필품 지원사업 등에 3,000만 원을 기부한 바 있다. 이번에 전달받은 성금은 용인·수원·성남 지역 장애인들이 평창 동계 패럴림픽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입장료 및 버스대절비·식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경기 북부사업부, 설 명절 지원사업 진행

2월 7일 경기 공동모금회 북부사업본부는 양주시옥정종합사회복지관 온누리홀에서 2018년도 설 명절 지원사업 '온기가득 사랑가득' 행사를 열었다. 북부사업본부는 설을 맞이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설 명절 생계비 2억 9,500만 원, 아너 소사이터티 봉사활동과 연계한 양주·파주 설 명절 물품(명절음식) 지원 등 3,500만 원을 포함한 총 3억 3,000만 원을 지원했다.

전북



세아베스틸, 군산시에 백미 800포 전달

(주)세아베스틸(대표 윤기수, 이태성)이 설을 앞둔 2월 13일 군산시(시장 문동신)에 백미 10kg 800포(1,68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 세아베스틸 측은 "회사와 사원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음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행복한 군산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탁된 성품은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종성)를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과 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꿈드래장애인협회, 도내 저소득가정에 김 세트 전달

2월 8일 꿈드래장애인협회(회장 이일우)는 전북도청을 찾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설 명절 지원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일우 회장은 "민족 최대의 명절을 맞아 소외의 그늘 없이 모두가 훈훈한 명절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전북 공동모금회는 이날 성금으로 김 세트를 구매해 전주시를 비롯한 각 시·군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대구



대구 효성병원, 도시철도 건강기부계단 적립금 800만 원 기부

대구 효성병원(병원장 박경동)은 1월 29일 수성구 중동에 위치한 효성병원에서 이웃사랑 성금 800만 원을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함인석)에 전달하며 '희망2018 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 효성병원은 지난해 8월 대구도시철도공사와 함께 대구도시철도 1호선 동대구역에 계단을 오르면 1인당 10원씩 기부금이 적립되는 '제1호 대구도시철도 건강기부계단'을 조성하는 등 기부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날 성금은 소외 이웃들에게 전해질 예정이다.



대구남구의원 9명, 정기기부 실현 '착한의회' 가입

1월 26일 대구남구의회(의장 서석만) 의원 9명 전원이 대구 공동모금회의 정기기부 캠페인인 '착한시민'에 가입하고 '착한의회'에 이름을 올렸다. 의원들은 평소 지역민들에게 받는 사랑을 보답할 방법을 찾던 중 대구남구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의 소개로 '착한시민'을 접하게 됐다. 서석만 대구남구의회 의장은 "남구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해 마음을 모았다"며 "하나 되는 남구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인천



인천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신년 인사회

1월 31일 인천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들이 모여 신년 인사회를 가졌다. 행사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정명환 인천 공동모금회장, 이도명 인천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회장 및 회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8명의 신입회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신규 회원 1명의 가입식을 진행한 후 오찬 순서로 마무리됐다.



한국전력 인천본부,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관람 지원

한전 인천지역본부(본부장 임혁환)는 2월 1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관람권 60매와 이웃돕기 성금 550만 원을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정명환)에 전달했다. 이번 지원은 문화 체육활동의 지원이 열악한 아동을 대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 관람을 통해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이번 성금 550만 원과 티켓 60매를 통해 인천 보라매보육원 입소 청소년들이 동계올림픽 스키점프, 컬링 등 경기 관람을 할 수 있게 됐다.



손경화·박상현 교수 부부, 전남 첫 부부 나눔리더에

2월 12일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허정) 최초 부부 나눔리더가 탄생했다. 주인공은 손경화 청암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와 박상현 순천대학교 멀티미디어공학과 교수로, 이들 부부는 각각 전남 1호, 2호 나눔리더가 됐다. 손 교수는 “항상 기부에 대해 고민하며 작은 금액이라도 나누며 살고 싶었다. 계속해서 나눔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손 교수는 현재 광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으로 지역 사회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 강진사무소, 이웃사랑 성금 전달

2월 14일 호남지방통계청 강진사무소(소장 이기혁)는 이웃사랑 성금 31만 2,000원을 전남 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이기혁 소장은 “적은 금액이라도 직원들과 십시일반 나눔에 참여하고 싶어서 전달하게 됐다”며 “설 명절 기간 모두가 따뜻한 명절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달된 성금은 전남 지역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생계비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훈구 혜성당 한약방 원장, 쌀 1,000포 기탁

2월 5일 충남 아너 1호 회원인 이훈구 혜성당 한약방 원장은 설맞이 쌀 10kg 1,000포(1,875만 원 상당)를 부여군(군수 이용우)에 전달했다. 이 원장은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2009년을 시작으로 변함없이 해마다 쌀(10kg) 1,000포를 기탁해 오며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부여군은 기증받은 쌀을 홀어르신, 저소득층 가구 등 복지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소외이웃에 돼지고기 10톤·고기만두 500박스 전달

2월 8일 대한한돈협회 충남도협의회(회장 최상락)와 대전충남양돈농협(조합장 이재만)이 돼지고기 10톤과 고기만두 500박스를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관형)를 통해 충남도청(도지사 안희정)에 기탁했다. 기탁된 돼지고기와 고기만두는 양돈농가들이 돼지를 키우며 조성한 자조금과 대전충남양돈농협의 협찬으로 마련됐다. 한돈협회 충남도협의회는 매년 설 명절에 대전충남양돈농협과 함께 돼지고기와 고기만두 등 6,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해 왔다.

광주



박홍석 (주)럭키산업 회장, 이웃돕기 성금·품 1억 원 전달

1월 23일 (주)럭키산업 박홍석 회장이 '희망2018나눔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상열)에 이웃돕기성금·품 1억 원을 기탁했다. 박홍석 회장은 “지금까지 (주)럭키산업이 지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왔으며, 그 사랑을 지역민에게 환원하는 것이 기업의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민과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농협 광주본부 임직원, 천사성금 1,004만 원 기탁

2월 1일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일수)는 본부 회의실에서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 공동모금회에 성금 1,004만 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2011년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할 목적으로 시작했던 '사랑의 1004운동'의 일환으로, 인사철 영전 축하 꽃 경매대금과 시상금, 급여기부, 폐지판매 대금 등으로 조성됐다. 이번 성금은 난치성 희귀병을 앓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의 수술비 및 치료비, 범죄피해자 자립자활을 위한 생계비 등에 지원될 예정이다.

대전



명량시대외식청년창업협동조합, 3,000만 원 상당 백미 기부

명량시대외식청년창업협동조합(이사장 이종형)은 2월 19일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대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안기호)를 통해 무료 급식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 10개소에 3,000만 원 상당의 백미 750 포를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명량시대외식청년창업협동조합이 지난해 12월 대전 공동모금회와 체결한 사회공헌협약 기금으로 수행됐다. 이날 이종형 이사장은 “오늘 지원된 쌀로 많은 분이 추운 겨울 따뜻한 식사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500만 원 상당 온누리상품권 전달

2월 9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원장 이상훈)은 설을 맞아 지역 사회복지지시설 지원 및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대전 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1999년부터 직원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모금해 사랑의 장학금 지원, 명절 소외계층 지원, 연탄나눔 등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 앞장서고 있다. 이날 기탁받은 온누리상품권은 신탄진지역아동센터 등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10개소에 전달됐다.



문경제일병원, 2018년 1호 착한기업으로

동춘의료재단 문경제일병원(이사장 류창수, 원장 김상헌)이 1월 17일 새해 첫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신현수)의 착한기업이 됐다. 착한기업은 연 2,000만 원 이상의 사회공헌 성금·품을 최소 3년 이상 기부 약정한 기업을 말한다. 문경제일병원은 이날 매년 2,000만 원 이상 성금을 기부, 3년 내 1억 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하며, 경북 2호, 문경 1호 착한기업으로 등록됐다. 김상헌 원장은 “착한기업이라는 이름에 걸 맞게 꾸준한 기부로 모범을 보이겠다”고 이야기했다.



포항 멘토장애인평생교육원 지적장애인 청년들 성금 기부

지난 1월 11일 포항 멘토장애인평생교육원 지적장애인 청년들이 '희망 2018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30만 원을 기부했다. 이번 성금은 사회복지법인 해솔의 멘토장애인평생교육원에서 바리스타 자격 취득을 준비중인 지적장애인 청년들이 직업재활훈련의 일환으로 포항시 휴양지·공원 등지에서 미니카페를 열고 손수 내린 커피와 음료를 판매해 마련한 것이다. 이 청년들은 2012년 1월 첫 기부를 시작으로 7년째 꾸준히 이웃돕기에 참여해오고 있다.



나눔유공자 포상식 및 2018 배분사업비 전달식

제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는 2월 1일 제주도 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나눔유공자, 도내 사회복지시설·단체장, 종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눔유공자 포상식 및 2018년 배분사업비 전달식'을 개최했다. 고승화 회장은 “지난 한 해도 따뜻한 제주를 만들어주신 나눔유공자와 도민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도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 공언했다.



제주에너지공사, 희망2018나눔캠페인 성금 3억 원 기탁

1월 26일 제주에너지공사(사장 김태익)는 공사에서 희망2018나눔캠페인 성금 3억 원을 제주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이날 김태익 사장은 “영하의 날씨로 추운 겨울을 보내고 계신 많은 분께 이번 기부금이 작게나마 보탬이 되어 나눔으로 제주 지역의 체감온도가 올라가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제주에너지공사는 설립된 해인 2012년부터 제주 공동모금회를 통해 나눔을 실천해 왔으며 현재까지 누적 기부금은 총 21억 6,200만 원에 달한다.



장광수 울산 모금회장 부인 아너 가입... 6호 부부 아너 탄생

울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장광수)는 지난해 12월 29일 아너 소사이어티 77호 회원 가입식을 가졌다. 영광의 주인공은 김명언씨로 61호 장광수 울산 공동모금회장의 부인이다. 이로써 울산 77호 아너이자 6호 부부 아너가 탄생했다. 김명언씨는 "남편과 함께 좋은 일을 같이할 수 있어서 기쁘다. 많은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활동에 적극 임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SK 울산Complex, 행복나눔 성금 전달

지난 1월 22일 SK 울산Complex(총괄 부사장 박경환)가 울산시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행복나눔 성금 3억 5,000만 원을 전달했다. 전달된 성금은 취약계층과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2억 원, 홀어르신 생필품, 치매어르신 실종방지사업, 범피해자 생계비, 저소득세대 주거환경개선 등에 1억 원, 위기청소년의 꿈 찾기과 학교폭력예방사업에 5,000만 원 등이 사용될 예정이다.

**사랑의열매
다양한
기부 방법**

문자기부
#9004
(한 통에 2천원)

ARS기부
060-700-1212
(한 통에 2천원)

온라인기부
같이가치
with kakao

상담 혹은
문의가
필요하다면
080-890-1212

계좌기부
예금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민 003137-04-000306
농협 1082-01-001966
신한 100-013-446845
외환 068-13-21097-3
우리 052-581567-13-101
하나 399-810005-31705

기념일기부
좋은 날,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눠요
(문의 02-6262-3082)

이벤트기부
즐거운 행사와
사랑 나눔을 함께
즐거보세요



세상을 바꾸는 당신의 결심, 고맙습니다!

경기 169호

박경애 여자수산 대표



“어려운 이웃을 위해 큰 뜻을 펼치고 있는 아너 회원들에게 감동을 받았다. 나

도 이제 다양한 나눔활동으로 도 내 나눔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고 싶다.”

광주 72호

최세연 (유)가람 대표이사



“작은 것에서 부터 시작했던 나눔활동이 매년 확대해 갈 때마다 사업도 함께

성장했다. 주변에 아너를 홍보해 신규 회원들이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전남 68호

위재춘 여성종합나무 대표



“행복은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비로소 느끼는

것이다. 지금 해야 할 일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지해 준 가족들에게 감사하다.”

전남 69호

최영미 (주)영해 대표이사



“항상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베풀 줄 아는 남편이 자랑스러웠다. 결혼 31주년

을 맞이해 의미 있는 나눔을 실천하고 싶어 가입했다.”

전북 45호

강경순 님



“남편과 함께 부부 아너가 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눌 수 있다 생각하니 더없이

뿌듯하다. 이 성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된다면 더 바랄 게 없다.”

대전 62호

김기승 대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내가 가진 것을 이웃에게 베풀고 살아야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앞으로도 힘들

고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의 미덕은 희망의 등불이 될 것이다.”

대전 63호

한용덕 한화이글스 야구 감독



“저도 주변의 도움으로 이 자리에 온 것처럼, 도움을 받는 그 누군가도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부산 135호

김경민 씨피시스템(주) 대표이사



“아너에 가입한 날이야말로 세상에 태어나 가장 보람된 날인 것 같다. 앞으로

도 배려로 더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행복을 선사하겠다.”

경북 80호

윤희영 주흥산업개발 대표



“문경은 나의 제2의 고향과도 같다. 지역에서 내가 받은 배려와 사랑을 다시 지

역과 소외 이웃에게 되돌려드리고 파 가입했다.”

경북 84호

조중래 주왕산삼계탕(주) 대가야 대표



“2012년부터 구미시 사랑의 열매 나눔봉사 단장을 맡아 기부와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

왔다. 앞으로도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사회 만들기에 늘 관심을 갖고 봉사하겠다.”

대구 114호

강위태 깨도랑 농원 대표



“평소 고민하고 있던 아너에 가입하게 돼 기쁘고 후련하다. 나의 나눔이 마중물

이 되어 대구가 따뜻한 사회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인천 117호

주영범 신안운수(주) 대표이사



“나눔은 작은 실천으로부터 시작한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하겠다.”



인천 공동모금회 박은상 (주)선두종합건설 대표



강원 공동모금회 익명



충남 공동모금회 김영근 (주)합동지질 대표



부산 공동모금회 익명, 익명



전남 공동모금회 박태훈 영농조합법인 씨앗과사람들 대표,

조세용 목포미르치과 원장



광주 공동모금회 박현규 (주)대영ISD 대표, 최윤경 (주)공영산업 대표이사, 최진숙 신진정밀(주) 대표이사, 이상철 (주) 화인테크 대표이사, 김정설 (주)한국그린피아 대표이사



〈사랑의열매〉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난호 독자의견

인천 만석동 쪽 방촌 주민들의 나눔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 나눔이 가능하다



는 나의 편협한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었던 기사입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지금 당장 나눔을 실천해야겠습니다.

최재호 · 충남 홍성군

김방락 아너의 이야기를 읽고 한동안 먹먹해 졌습니다. 마음껏 공부하는 친구들이 한없이 부러



웠다는데, 한탄하지 않고 사랑의 실천으로 행복을 찾은 모습을 보니 존경스럽습니다. 진정한 삶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전희지 · 충북 청주시

평창올림픽 성화 주자로 나선 김방락 아너의 기사를 읽고, 기부는 부자만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나눔의 모습을 통해 기부문화가 많이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선민 · 대전

참여방법

- * 이메일(E-mail: cckpr@chest.or.kr)로 보내주세요.
- * 〈사랑의열매〉를 읽은 후 소감이나 의견을 보내주세요.
- * 나눔에 대한 재미있고, 감동적인 경험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 * 〈사랑의열매〉를 가족, 친구 등에게 선물한 인증 사진을 보내주세요.
- * 〈사랑의열매〉 기사 및 편집에 대한 아이디어를 보내주세요.
- * 보내실 때는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독자 참여 사은품

독자의견(3명)에 선정된 분에게는 내용 소개와 함께 문화상품권(2만 원)과 사랑의열매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사랑의열매 단행본 세트



우산



열매 배지, 열매밴드



USB



〈사랑의열매〉를 E-BOOK으로도 만나보세요!

〈사랑의열매〉 매거진은 '사랑의열매' PC·모바일 페이지에서 e-book(전자책)과 PDF 파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하단의 '홍보자료' 배너를 클릭하면 해당 서비스 화면이 나옵니다.

사랑의열매 홈페이지 www.chest.or.kr

햇살을 나눠 웃음을 키웁니다

태양에너지를 나누는 해피선사인 캠페인

한화는 2011년부터 전국 217개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태양광으로 절약된 에너지 비용은 도서관, 공부방 등에서
꿈을 키우는 아이들의 다양한 혜택이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따뜻한 빛을 선물하는 햇살처럼
함께 자라는 내일을 해피선사인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화 해피선사인 캠페인

사회복지시설, 국가유공자 주택 등
전국 217여 곳에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

중국 닝샤 사막에 태양광 양모장을 기증,
26만 그루의 나무로 사막방지화 숲 조성

중국 빈곤지역 학교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기증한 한화-희망공정 해피선사인

새로운 친구를 사귀다

셔츠와 신발도 없이 흙길을 뛰어다니는 아프리카 아이들의 모습을 본 아홉 살 애나와 일곱 살 쌍둥이 동생 레아, 라이언. 어렵게 살고 있는 친구들이 많다는 엄마의 설명을 듣고부터 달라졌다. 모델이 되어 카메라 앞에 설 때마다 자신들을 위한 선물을 기다리던 아이들이 이제는 어려운 친구들을 위한 선물을 사줄 수 있도록 기부하기로 했다. 친구들을 도울 수 있다는 마음에 새 장난감보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애착 이불, 애착 인형과 더 재밌게 놀기로 했다. 욕심 부리지 않으면 더 많은 아이가 행복해질 수 있고 그 아이들 모두가 마음으로 친구가 될 수 있으니 말이다.

